



## 冠岳에서 펼쳐진 동문 화합의 물결!

6천여 동문, 모교 버들골서  
홈커밍데이 및 친목 대축제



林光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 유수의 대학들은 동문들의 애교심에 따른 헌신과 기여로 명문대학이 됐다”며 동문들의 애정과 관심을 부탁했다.



본회는 지난 10월 20일 6천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관악캠퍼스 버들골에서 제34회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대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3~5면>

### 관악출추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북쪽 고즈넉한 곳에 자리 잡은 버들골! 6천여 명의 동문들과 가족들이 과란 하늘 아래 도란도란 앉아 도시락을 함께 하며 모처럼의 가을 휴일을 만끽하고 있다. 막걸리 한잔에 용기를 얻은 나이 드신 동문들 가운데는 육자배기를 읊조리는가 하면, 무대 위에서는 젊은 동문들이 신세대에 걸맞은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우고 있다. 박 터뜨리기, 줄다리기에다 어린이들의 춤 솜씨 경연대회, 그 사이사이로 경품추첨 발표가 있을 때마다 환호성이 터진다. 지난달 20일 가을 단풍철을 맞아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홈커밍데이’의 단면이다.

이날 행사장에는 중앙무대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자리 잡은 10여 개의 대형 천막에 단과대학별 동창회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자랑스럽게 내걸렸다. 자연스럽게 동문과 가족들은 소속 대학동창회 천막으로 끼리끼리 모여들었다. 간호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생활과

### 文理大의 斷想

학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을 비롯해 환경대학원, 화학생물공학부의 동창회와 연공동문회 등의 플래카드가 눈길을 끌었다. 이를 둘러보면 필자는 잠시 당황스러웠다. 동숭동에서의 추억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문리대’의 플래카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

뿐이 아니라 문리대를 졸업한 정치학과, 사회학과, 영문학과, 물리학과 등 다양한 학과 출신의 동문들도 잊비슷한 씁쓸함을 느꼈다. 1975년 학제 변경으로 문리대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으로 분화됐는데, 이 신생 대학동창회들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행사관계자의 설명이다.

동창회라는 것이 과거 학창시절의 친목을 이어나가는 것이고, 문리대동창회가 현존해 있는 만큼, 내년 홈커밍데이에서는 ‘문리대’의 힘찬 플래카드를 보고 싶다. 아니면 문리대에서 분화된 인문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의 플래카드라도 내걸어 흠뻑 흠뻑 흡수하고 싶은 동문들을 자연스럽게 끌어안았으면 싶다. 그래야 문리대 출신 동문들의 홈커밍도 늘어나지 않을까! (金仁圭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본보 논설위원)

느리나무광장

국정원 댓글 사건은 야당 주장처럼 元世勳 前원장이 지시한 것일까. 경찰 수사과정도 검찰 지청장도 자기 조직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는 세상이다. 그러고도 ‘영웅’ 대접을 받는다.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은 70명 규모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장이 만일 “야당 대선 후보를 지원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내렸다면 대선이 끝나고 10개월이 넘도록 국정원 직원 전체가 침묵을 지킬 수 있었을까.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야당은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인 대북 심리전을 벌였을 뿐인데 야당이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반박한다. 국정원 직원들이 달았다는 인터넷 댓글 수천 건 가운데 대선 관련 글이 수십 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만 해도 그런 설명이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퍼 날랐다는 트위터 속에서 대선 관련 글이 수만 개 추가로 드러나면서 얘기가 달라져 버렸다.

야당 주장도 야당 주장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진실은 아마 그 중간쯤에 있을 것이다. 국정원은 종북 세력과의 전쟁을 사명으로 한다. 그런 조직에 자원해서 들어간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다. 보수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간부들은 정권이 바뀔 경우 닥쳐올 인사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래서 부하 직원들 앞에서 야당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였을지 모른다.

진실은 그 중간쯤에 있다

金 昌 均  
조선일보 부국장  
본보 논설위원



다. 이런 분위기들이 겹쳐지면서 일부 직원들이 댓글 작업을 하는 가운데 경계선을 넘나드는 일탈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

검찰은 검찰대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상태에 빠져들었다. 지휘부는 “수사팀장이 결재도 받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는 하극상을 저질렀다”고 분개한다. 수사팀장은 “지휘부가 수사를 가로막아서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행동했다”고 맞선다. 어느 한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휘부도 수사팀도 각자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사는 대부분 흑백이 어우러진 회색지대에 속한다. 그런 이치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도 한 쪽 편은 까맣다고, 다른 쪽 편은 하얗다고 우기면서 언성을 높인다. 타협적이거나 절충적인 목소리를 냈다가는 이적행위로 몰릴까 두렵다. 그래서 자기편이 주장하는 한 쪽 극단이 100% 진실이라고 억지 주장을 편다. 양심상 그럴 수 없다면 조용히 입을 다물고 만다. 언제쯤 “진실은 그 중간쯤에 있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인가.

관악시단

푸른 신전

李 昌 鎬(국어교육71-75)  
삼육대 교수·시인

사람 곁에 있어  
사람으로 무심히 우러르게 하는 것

초록빛 높이 아릅드리로 띄워  
맑은 강물 어른거리듯  
비인 하늘 가득 출렁이게 하는

산새 놀다 가고  
바람 쉬었다 가고

나무, 그 부드러운 이름으로 구름 벗하고  
한 생애 내내 두 팔 벌려  
무슨 인연인 양 떠날 줄 모르는

너는  
가난하여 너를 찾는 이의  
가장 풍요로운 거실

동문칼럼

영어 ‘human’은 비옥하고 기름진 토지를 뜻하는 라틴어 ‘humus’에서 유래했다. 사람을 뜻하는 ‘human’의 어원이 만물을 생동하게 하는 대자연의 근간이자 수많은 생명체가 잉태되고 자라나는 토지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풍요로운 토지와 같이 사람 또한 끊임없는 의문과 고민으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의 싹을 틔우고 가꾸어 나가면서 오늘날 거대한 현대문명을 꽃피웠다. 가장 연약한 존재였던 사람이 이렇듯 놀라운 문명을 이룩하고 과학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존재의 시작과 함께 저작물을 창작하고 집단의 생각을 연결, 융합하면서 확장시켜나갔기 때문이다. 즉, 저작권은 생경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고뇌를 통한 창작이 시작됐던 먼 옛날부터 우리와 함께 해 온 개념이다.

하지만 현대 디지털 문명사회에서 한층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는 단순한 창작이 아닌, 저작물의 활용을 통한 제3의 가치 창

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다양한 개인들의 창조적 사고의 산물인 저작물은 창조와 융합의 단계를 거쳐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현대 문화의 근간이 돼 왔다. 토지, 노동, 자본으로 대변되던 생산의 3요소가 개인, 지식, 아이디어로 재편되는 ‘신성장 이론’을 창시한 폴 로머 교수에 따르면, 창조적 아이디어는 기존 자원의 유한성에서 탈피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신성장동력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은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는 혁신적인 저작물들도 기존의 저작물에 근간하거나 그것을 활용·융합해 탄생한 것임을 의미한다. 오늘날 인터넷 공간에서도 디지털 기술로 구축된 정보의 공유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구글의 온라인 도서관 프로젝트인 ‘구글북스’는 일평균 약 3천권의 책의 디지털화 작업을 시행해 일정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나 다양한 지식을 끊임없이 갱신할 수 있는 온라인 백과 ‘위키피디아’ 또한 대규모의 협업에 의해 창조된 역동적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세상의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미국의 비영리 재단 ‘TED’와 해외 명문대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iTunesU’는 미래의 지식재산이



庾 炳 漢  
(법학77-81)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진리는 우리의 빛’이란 상생 정신

출이다.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저작권은 디지털 혁명시대를 맞아 저작물의 새로운 이용형태가 증가하면서 창작-유통-소비의 순환구조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생겨나고 있다. 창조경제를 향한 첫걸음은 다양한 개인, 집단 사이에서 비롯된 저작권 분쟁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에서 시작한다.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균형적 가치 재설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작-유통-소비-확대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저작권 선순환 체계 강화를 위한 상생 기반 마련이 돼야 할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1년 전체 저작권산업의 부가가치는 1백21조8천4백20 억원으로 우리나라 GDP의 9.86%를 차지할 만큼 향후 저작권 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그 입지

공유되고 확산돼가는 방식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시작한 ‘서울대 열린 강좌’ 서비스는 iTunesU와 취지가 흡사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처럼 저작권은 우리의 실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으며, 저작물을 통해 많은 이들과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이제는 기존의 저작물을 활용·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탄생시킬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만물이 순환하는 터전이 돼주는 비옥한 토지처럼 저작권 또한 인류가 생동하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한 근간이 돼줄 것이다. 협력과 융합을 통해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서울대의 정신이 이제는 ‘진리는 우리의 빛’이라는 상생의 정신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인쇄인 孔 大 植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416호 (장학빌딩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5)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1969@naver.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旻日,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金昌均, 李相起, 鄭然旭, 蔡耕玉, 許文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朴新載, 林香默, 邊廷洙, 朴秀璋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여한 40대와 50대 동문들이 '호랑이팀'과 '사자팀'으로 나뉘어 줄다리기를 통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 제34회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동문 가족 화합 한마당

# 잔치 흥겨움 속 서울대인의 자부심 확인!

## 등산 및 교내탐방 후 다채로운 행사 푸짐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0월 20일 6천여 명의 동문과 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34회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동문 가족 화합 한마당을 성황리에 마쳤다.

오전 9시부터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접수를 마친 동문 가족들은 기념배지와 대회 일정이 담긴 안내문 등을 받은 뒤 안내원의 인솔에 따라 등산탐방과 교내탐방으로 나눠 자유롭게 관악산 자락과 캠퍼스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내탐방은 미술관·박물관·규장각을 돌아보는 순으로 이뤄졌다. 올해에도 이번 행사를 위해 휴관일임에도 특별히 문을 열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개장 전부터 많은 동문이 몰리는 등 행사 내내 높은 호응을 얻었다.

미술관은 지난 9월부터 전시 중인 'Love Impossible'과 '전광영' 전시회를 선보였다. 'Love Impossible' 전시회는 국내외 20여 명의 작가가 사랑을 주제로 한 실험적인 작품을 총 3가지 섹션으로 구성했으며, '전광영' 전시회는 한지 작가로서 뚜렷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 1970년대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를 망라해 조명하고 있다.

박물관에서는 모교 도예전공 교수 및 재학생이 참가한 '새로운 과거-박물관 유물과 현대 도자공예' 전시가 진행돼 다채로운 도예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의 유물이 재료와 기술, 기능 등에서 박물관 유물과 젊은 작가의 시선으로 어떻게 재해석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규장각에서는 외국인이 쓴 견문록과 연구서를 통해 세상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해외 각지에서 이뤄져 온 한국학 연구의 성과를 뒤돌아볼 수 있는 '한국학,

밖에서 본 한국' 전시가 진행돼 많은 관심을 끌었다.

교내탐방탐과 달리 대운동장에서 농생대 방향의 순환도로를 따

를 통해 "올해로 개학 118주년을 맞이한 모교는 지난 6월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가 발표한 아시아대학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동



동문 자녀들이 함께 한 박터트리기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킨 모교 중창단의 열창



댄스 대결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동문 자녀들

라 관악산에 오른 등산팀은 아카시아 동산→제40영장 전 삼거리→모교 공대 순환도로 등산로 입구→제2공학관→교수회관→버들골로 이어지는 코스로 관악산을 둘러봤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산로 길은 비교적 평탄한 코스로 특히 산자락 곳곳에 울긋불긋 물든 단풍까지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어 많은 동문의 발길을 끌었다.

모교 아카펠라 동아리 인스트로 의 흥겨운 노래로 문을 연 2부 기념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대회사

경대를 제치고 4위에 올랐으며, 동 기관이 9월에 발표한 세계대학평가에서는 35위를 차지하며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말했다.

이을러 "총동창회 또한 재작년 완공된 장학발당의 임대수입금으로 작년에는 25억9천여 만원의 장학금과 70억원 규모의 장학연구지원사업을 지원해 1차년도 교수 강의 동영상 사업과 교육혁신 프로그램 개발하고 9월 23일부터 인터넷 강의를 시작했으며 지난 10월 16일 평가회의에서 그 자랑스

런 성과를 교내외에 선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달 '서울대 열린 강좌'에 관한 보도자료가 발표되자 국내 주요 언론매체들은 방송 및 사설을 통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재학생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여론 또한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대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로써 모교는 교육 수월성의 제고와 더불어 지식 나눔의 실천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세계 유수의 대학들은 동문들의 애교심에 따른 헌신과 기여로 명문대학이 됐다"며 "이처럼 명문대학은 우리 스스로, 그리고 학교와 동문들이 함께 만드는 것"이라며 동문들의 애정과 관심을 부탁했다.

모교 吳然天총장은 축사에서 오늘은 우리 동문들의 자부심을 확인하고 축하하는 축제의 자리라고 전한 뒤 "자랑스러운 동문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서울대가 존재하며, 모교의 미래는 견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며 "동문들이 이룩한 눈부신 성과를 이제는 모교 교수 및 학생들이 이어나가 더욱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판소리 한마당의 張瑞允양

또 "나라가 있고 모교가 있는 만큼 모교의 융성이 바로 나라의 융성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국가로 진입하는 데 있어 우리 서울대인의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자부심을 확인하고 더 힘찬 전진을 통해 모교가 대한민국 국민의 대학으로서 나라의 발전에 있어 첨병이 될 것을 함께 다짐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경과 보고에서 孫一根상임부회장은 경품을 제공한 35명의 동문과 협찬금을 출연해준 1천여 명의 동문을 소개하고 감사의 뜻

을 전하며 "34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총동창회가 온 정성을 쏟아서 마련한 가장 뜻깊은 행사로 오늘 하루는 동문들과 즐거운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협찬 동문 명단 4~5면 참조>

3부 친목과 단합의 시간은 蔡賢九(체육교육78-82)·朴眞希(기약09-13)동문과 모교에 재학 중인 吳賢瑀(정치외교12입)군이 공동 사회를 맡아 재치 있는 입담으로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별공연으로 모교 댄스 동아리 '스핀' 멤버들이 화려한 자이브 무대를 선보였으며, 林東赫(성악01-09)동문을 비롯한 7명의 동문으로 구성된 중창단은 'Funiculi Funicula',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Champions' 등의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돋웠다. 특히 吳然天총장의 신성으로 즉석에서 오페라 투란도트 중 'Nessun Dorma'를 열창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모교 판소리 동아리 '추임새'의 張瑞允(국악10입)양은 鼓手 高準錫(국악11입)군의 장단에 맞춰 흥부가 중 '박타령'과 진도 아리랑을 불러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외에도 박 터트리기, 줄다리기, 어린이 댄스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게임이 마련돼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해 열띤 경합을 펼쳤다. 게임 참가자에게는 승패에 따라 고급 우산, 등산 가방, 자동차용품, 어린이 서적, 도서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이 전달됐다.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경품추첨에서 본회 林光洙회장이 협찬한 승용차는 金相浩(대학원 79-81)동문이 당첨의 영광을 안았다. 또 대립산업 李俊鎔(경제56-60 본회 부회장)명예회장이 협찬한 스쿠터는 林采郁(사회 57-64)동문, 삼익악기 金鍾燮(사회사업66-70)회장이 협찬한 디지털 피아노는 李大衡(무기재료공학90-94)동문, 나노카보나 申一汕(AMPFRI 14기)대표가 협찬한 LUXDAY 솟침대는 李暉夏(행정64-68)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香>

# 홈커밍데이 협찬 감사합니다

동문 가족 화합 한마당에 협찬금·품을 출연해 주신 각계 동문을 소개합니다.  
- 지면 관계로 협찬품 및 협찬금(30만원 이상)을 내주신 분들만 사진 게재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신대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장  
신  
호



의대46·본회 고문  
동아쏘시오그룹 회장  
음료수 4천개

김  
재  
순



상대47·본회 명예회장  
사단법인 샘터사 고문  
어린이서적 5세트

오  
연  
천



문리대70·본회 명예회장  
모교 총장  
고급우산 3백50개

임  
광  
수



공대48·본회 회장  
임광토건 명예회장  
승용차 1대

손  
일  
근



법대51·본회 상임부회장  
한국일보 고문  
디지털 카메라 1대

조  
필  
제



공대46·관악회 이사  
세양주택 회장  
일금 30만원

유  
중  
해



법대50·본회 부회장  
연세대 명예교수  
일금 20만원

이  
길  
여



의대51·본회 부회장  
가천대 총장  
드림세탁기 1대

이  
해  
원



법대51·본회 부회장  
한국우드워드 회장  
일금 30만원

박  
희  
백



의대51·본회 부회장  
박희백정형외과의원장  
진공청소기 2대

박  
맹  
호



문리대52·前인문대동창회장  
민음사 회장  
신기한스쿨버스 전집 5집

정  
연  
세



공대53·본회 부회장  
한국선급엔지니어링 회장  
일금 50만원

이  
금  
기



약대55·본회 부회장  
일동후디스 회장  
그리코거트 3천5백개

권  
영  
대



약대55·관악회 이사  
덕홍상사 회장  
일금 30만원

이  
준  
용



상대56·본회 부회장  
대림산업 명예회장  
스쿠터 1대

김  
찬  
숙



치대56·본회 부회장  
청아치과병원 이사장  
일금 50만원

공  
대  
식



공대56·관악회 상임이사  
대영테크시스템 사장  
전기압력밥솥 2대

정  
윤  
환



농대56·본회 부회장  
일성화학 사장  
일금 50만원

이  
부  
섭



공대56  
동진메이켈 회장  
일금 1백만원

손  
경  
식



법대57·본회 부회장  
CJ그룹 회장  
CJ상품권 5매

남  
정  
현



공대57·본회 부회장  
대우테크 고문  
일금 50만원

우  
인  
성



공대58·본회 부회장  
인터비즈니스시스템 회장  
일금 50만원

박  
성  
훈



공대58·본회 부회장  
모간 사장  
일금 50만원

안  
성  
철



법대58·관악회 이사  
유니온테크 회장  
일금 30만원

김  
천  
식



상대58  
서울문고 반디앤루니스 대표  
도서상품권 1만원권 50매

조  
갑  
주



상대58  
신송홀딩스 회장  
신송식품 선물세트 20개

조  
병  
우



공대59·본회 부회장  
유풍 회장  
일금 50만원

강  
인  
구



수의대59·본회 부회장  
대영EEC 회장  
일금 50만원

유  
상  
부



공대60·본회 부회장  
포스코 고문  
일금 50만원

변  
주  
선



사대60·본회 부회장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갑상선 복부초음파권 3매

박  
영  
준



상대60·본회 감사  
대주회계법인 회장  
일금 50만원

이  
현  
수



농대60·농생대동창회장  
재단법인 서현  
일금 30만원

정  
계  
영



상대61·관악회 이사  
원일전선판매 회장  
일금 30만원

박  
용  
현



의대62·본회 부회장  
연강재단 이사장  
일금 50만원

박  
호  
전



상대62·본회 부회장  
삼덕 회장  
일금 50만원

김  
경  
한



법대62·본회 부회장  
KH법률연구소 변호사  
일금 50만원

유  
승  
빈



공대63  
양지진흥개발 회장  
드래곤월스와 이용권 5백매

김  
일  
섭



상대64·관악회 이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일금 30만원

김  
동  
녕



상대64  
한세에스24홀딩스 회장  
영화예매권 50매

최  
명  
진



사대65·생활대동창회장  
前관동대 강사  
일금 30만원

정  
동  
준



행대원65  
동환산업 부사장  
한중일 상용한자 20권

김  
중  
섭



문리대66·본회 부회장  
스펙오·삼익악기 회장  
디지털피아노 1대

최  
중  
고



법대66·대학원동창회장  
모교 법학부 명예교수  
일금 30만원

성  
기  
학



상대66·상대동창회장  
영원무역 회장  
등산 가방 1백개

이  
문  
한



수의대66·수의대동창회장  
모교 수의학과 명예교수  
일금 30만원

신  
현  
우



공대66  
볼스원 부회장  
자동차용품 1백개

김  
기  
병



행대원67·행대원동창회장  
롯데관광개발 회장  
여행상품권 30만원권 5매

홍  
석  
현



공대68·본회 부회장  
중앙일보 회장  
일금 50만원

양  
광  
희



간호대68·간호대동창회장  
前적십자간호대 학장  
일금 30만원

유  
동  
림



공대68·관악무역인회장  
두루무역 대표  
일금 30만원

이  
현  
봉



경영대68  
텍센타이어 부회장  
자동차 타이어나공권 1매

장  
중  
환



의대69·본회 부회장  
장중환산부인과의원장  
일금 50만원

주  
성  
민



법대69·본회 감사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일금 50만원

박  
건  
배



치대70·치대동창회장  
박건배치과의원 원장  
일금 30만원

김  
경  
희



상대70  
서울랜드 사장  
서울랜드 빅5이용권 50매

윤  
영  
두



자연대71  
아시아나항공 사장  
제주왕복항공권 1인2매

최  
병  
민



문리대71  
깨끗한나라 회장  
물티슈 4천개

신  
창  
재



의대72·본회 부회장  
교보생명보험 회장  
일금 50만원

정  
충  
시



공대72·본회 부회장  
태경산업 사장  
일금 50만원

김  
하  
준



사대73  
해외개발 대표  
스포츠형 목걸이&팔찌 각 20개

홍  
석  
규



사회대75  
보광그룹 회장  
휘닉스파크론도 2박 이용권 3매

남  
선  
현



대학원77  
JTBC 상임고문  
일금 30만원

정  
팔  
도



AIP1·본회 부회장  
코리아랜드컴파니 회장  
김치냉장고 1대

김  
병  
순



AMP4·관악회 이사  
한국구아노 이사  
일금 30만원

우  
재  
영



AMP7  
우일출판사 대표  
일금 30만원

이  
경  
일



AMP61  
이스타항공그룹 회장  
제주 왕복 항공권 1인 2매

강  
보  
영HPM1·前HPM동창 회장  
안동병원 이사장  
건강 검진권 2매장  
재  
현HPM15  
동인당약품 대표  
차량&가정용 가습기 각 5개신  
일  
산AMPFRI14·前AMPFRI동창 회장  
나노카보나 대표  
LUXDAY 슛침대 1대이  
동  
현AMPFRI15  
강남와인스쿨 이사장  
와인 선물세트 5개강  
영  
식FIP4·FIP동창 회장  
엘림시스 대표  
일금 30만원전  
익  
관ABKI1·ABKI동창 회장  
K&I그룹 회장  
일금 30만원최  
인  
숙ABKI3  
마리인터내셔널 대표  
바디용품세트 1만5천개

(일금 20만원)

◆문리대 △이문규61  
◆미대 △이종철58  
◆법대 △김철수52  
◆상대 △최남해52  
◆AFB △허선욱9

(일금 10만원)

◆인문대 △김환국79 △류은숙04  
△류 진78 △이수연83 △전원배73  
△조철원76 △최태영76  
◆사회대 △김완진72 △김진국78  
△서배수84 △양길현74 △유동근92  
△유일호75 △이철휘72 △최익순73  
◆자연대 △김남수73 △김영아86  
△석관수84 △한창우75  
◆간호대 △황혜영87  
◆경영대 △국기호79 △박용립73  
△박현수70 △장영준81  
◆공대 △강경탁52 △강동균80  
△강인권72 △강창수48 △강종원59  
△강학순64 △강행언61 △경세호53  
△곽삼영51 △구자영54 △국천표60  
△길정현45 △김광건70 △김덕원72  
△김덕초60 △김석주48 △김신원64  
△김영화59 △김익훈46 △김재동70  
△김정근57 △김정태76 △김주용58  
△김지환48 △김충업57 △김형진51  
△노규환55 △명태현46 △문규철69  
△문영학65 △박달수69 △박세화84  
△박승건76 △박재범84 △박태훈78  
△변선호59 △서봉수52 △서우원61  
△서진근53 △설학인53 △손승태67  
△송명호59 △송주철56 △송지환45  
△신근식66 △신동수52 △신현국68  
△심옥진61 △안덕주61 △안철호48  
△양흥준65 △어성준67 △오재환76  
△원정수53 △원호영59 △유교환56  
△유봉환56 △유익선59 △유태용50  
△육내승51 △육종철50 △윤창렬73  
△이계수63 △이광노47 △이광성66  
△이근명63 △이기준57 △이대락62  
△이명학73 △이법창52 △이상룡50  
△이상주58 △이석준83 △이성원58  
△이세열78 △이영필66 △이익용55  
△이정구60 △이정근51 △이정근77  
△이종호59 △이중성61 △이창갑46  
△이형도61 △이흥구75 △이화훈74  
△이희근55 △인성남63 △임무현61  
△임병주52 △임현구69 △장기주54  
△장삼진51 △장세창65 △장진호72  
△전문희53 △전형식66 △정방언73  
△정석현51 △정우식80 △정인조71  
△정조섭56 △정주열73 △조근대55  
△조복제58 △조영선63 △조환규56  
△주영재72 △지 순54 △최 연68  
△최길선65 △최승관73 △최종명56  
△최하경79 △최희장58 △추지석59  
△한정빈63 △허 환63 △허진욱81  
△황해근54  
◆농대 △고현우68 △곽영철59  
△권명구68 △권형욱88 △김강식52△김경하71 △김광호68 △김남용53  
△김동암52 △김동태62 △김사일53  
△김석산58 △김종전53 △김중계54  
△김진석69 △김필식61 △류관희63  
△류기락81 △박 정81 △박래경51  
△박수복56 △박승걸53 △박제범53  
△박준기56 △서명자61 △석준호55  
△설동섭53 △오흥수55 △이경국78  
△이경원61 △이돈구65 △이무근60  
△이선진69 △이정호71 △이종렬50  
△이현정64 △이환수59 △이희석57  
△임영목57 △임형백89 △장세중66  
△정진구65 △조성인77 △조영래82  
△조진환50 △차성윤57◆문리대 △강신항49 △강현두56  
△고 건56 △권기욱60 △김강년54  
△김광식59 △김기동65 △김두희52  
△김병익57 △김양배57 △김일환64  
△김종대67 △김찬근69 △남상규71  
△류지웅51 △박삼욱68 △박애주47  
△박용욱55 △변중섭48 △서광석51  
△서옥식69 △송동준56 △신상우64  
△신우식53 △안취준61 △임병윤60  
△오임렬52 △온준철64 △유동주54  
△윤석현46 △윤옥영58 △이 결69  
△이경형66 △이광희59 △이대승66  
△이병렬46 △이성해61 △이원홍52  
△이재근57 △이정운54 △이정자50  
△이종명65 △이해창61 △이현조52  
△이희경59 △임현진67 △임형두57  
△장순근65 △장정환56 △장희익57  
△전종갑64 △정병순58 △정완원49  
△정준영50 △조기웅66 △조원규48  
△최병두54 △최연균67 △하인경66  
△한갑수52 △허경연55 △홍사덕61  
△홍종용65 △황보순57 △황연익57◆미대 △고문자62 △민경갑53  
△박충흥65 △백문기46 △이신자50  
△전영철53 △현용순68  
◆법대 △강만수65 △강용현71  
△고광석63 △고광우53 △공로명51  
△곽동현61 △권동철59 △권재진72  
△권혁구55 △김광현54 △김근대63  
△김달식53 △김득환79 △김신혜73  
△김성길60 △김신형61 △김영갑74  
△김영무60 △김용대79 △김제식77  
△김진호57 △김창국58 △김창복51  
△김창홍56 △김하남49 △김현순54  
△나대진67 △문종수59 △박국수67  
△박상우75 △박성철75 △박영근80  
△박영현73 △박철근55 △배경숙49  
△배기열82 △백덕열67 △송두환67  
△송언중56 △신중대65 △심재갑52  
△안동일59 △안문태59 △양영준72  
△여동영60 △오복동57 △오태환53  
△원우현61 △윤준원67 △이건중72  
△이광진77 △이규완53 △이근식65  
△이대순53 △이동득59 △이무름61  
△이문호60 △이백규83 △이상근82  
△이영주58 △이인표54 △이중주85  
△이준보80 △이천수61 △이현범72  
△임규운53 △장상재55 △장윤석68  
△전웅진49 △전태환84 △정구영57△정용인60 △정은구58 △정은환67  
△정환상50 △정해운57 △정형근64  
△정휘위62 △정희준57 △조근호77  
△조병직46 △조상근69 △조현욱83  
△차동민77 △최경원63 △최근선54  
△최석원52 △최신석59 △최연희64  
△최형준51 △하일부57 △한창은59  
△한창호72 △함정호53 △허택원50  
△홍석조71 △홍정희68 △황경진52  
△황봉환73 △황영하58 △황은영87  
△황의만70 △황진구88 △황장섭53  
△황형모71◆사대 △강신주51 △구성희55  
△구인환50 △김동길57 △김선양53  
△김연식51 △김영수87 △김인수53  
△김정홍57 △김조영60 △김종성57  
△김해우64 △류목기54 △민흥기59  
△박 용59 △박경서66 △박규홍69  
△박문수74 △박영민62 △박운근59  
△박종국67 △박찬도58 △박한식51  
△박희숙56 △서의식75 △송광섭77  
△송동수67 △염영주66 △오건주76  
△오윤용60 △유관성69 △유자호68  
△윤용혁60 △윤웅섭61 △윤정일62  
△윤종삼52 △이기봉54 △이기석59  
△이동식72 △이승원73 △이희환64  
△임원준52 △임철일82 △전동렬75  
△정일환46 △정하경76 △제옥례33  
△조길준56 △조용복55 △조은분42  
△지창훈71 △최만희57 △최병호57  
△최용준61 △하만전50 △허영섭74  
△홍윤숙46 △황선용57◆상대 △강신종60 △강태석51  
△계준혁48 △고병우52 △권오근49  
△권오학57 △김남현53 △김승만59  
△김승환67 △김영수58 △김영식57  
△김완기46 △김윤경53 △김인기52  
△김종덕55 △김중수66 △김한오53  
△노명래54 △류태환48 △문대원71  
△박길삼68 △박성기57 △박성석61  
△박종석61 △배정운59 △변영일61  
△서주성44 △서태식58 △석학진58  
△선종승71 △송국현56 △송병탁59  
△심남진49 △안재전56 △안태호45  
△오강욱56 △원우식52 △유석기57  
△이강수51 △이경태66 △이구수57  
△이상득57 △이성태64 △이수익61  
△이순국60 △이승우53 △이용우61  
△이용진68 △이철희57 △이형철54  
△이형직67 △이희순55 △이희준49  
△임영식57 △임채주55 △조문규57  
△조병해53 △조 순46 △조원구64  
△주덕화46 △주 일56 △진 념59  
△진영수63 △최광현62 △최동건70  
△최명걸56 △최종찬68 △최환주66  
△추호석69 △한석윤54 △한찬수54  
△홍면후46 △홍영기57 △황동규63  
◆생활대 △서병숙55 △송기철95  
△안혜준77 △이의숙56 △정해자61  
◆수의대 △김만영50 △김본원63  
△김백수55 △나종국54 △박종명61  
△백오섭58 △송기준59 △신현일57△윤화중54 △정영채56 △정용근67  
△정윤섭55 △최윤석52  
◆악대 △강 서58 △권 박61  
△김선중61 △김성근55 △김성오81  
△김윤종64 △김종서56 △김진훈71  
△김한길59 △박종길71 △반태환65  
△서석수51 △신화범50 △심규장70  
△오용준58 △윤승로56 △윤홍중55  
△이경수66 △이광식66 △이규호60  
△이세복64 △이용연72 △장석윤79  
△차기현59 △추영구45 △홍순언60  
◆음대 △김선희81 △남지현85  
△변미혜75 △서계숙56 △신대철69  
△심선화72 △장재흥57 △현병화48  
△황용준87 △황화자60◆의대 △강대희81 △강신일58  
△강형운45 △김동원76 △김민석91  
△김수신69 △김영홍49 △김주일44  
△김주현65 △김중근70 △김환규78  
△노 여70 △노동영75 △문기찬67  
△박소현79 △박용재65 △박인원76  
△박찬웅54 △박효일58 △백상호53  
△서동희88 △서병태54 △서정호85  
△손대원74 △손봉기73 △오연상75  
△유명철61 △유왕성75 △윤정철59  
△은희철68 △이 철67 △이관희75  
△이기상73 △이도영63 △이민규86  
△이봉화75 △이상용64 △이승규67  
△임종윤68 △정규범65 △정상일88  
△정요한51 △조성근47 △지삼봉55  
△지영일60 △최경진68 △최규완55  
△최형석52 △하재인44 △한중수71  
△황순욱72◆치대 △강구한59 △강성현69  
△구창수52 △김경중72 △김능세70  
△김정수54 △김종열60 △김현풍60  
△남동석59 △류재훈62 △문일환65  
△박준영56 △송영호57 △신영근48  
△양동규53 △양문섭78 △오기환53  
△이법권57 △이석근90 △이태호72  
△이해호82 △임동욱66 △임승찬68  
△임창윤57 △정성창61 △정종선57  
△조성직54 △차만희57 △채종성80  
△최종석76 △하해근85 △홍성팔82◆대학원 △권경필96 △김동진83  
△김석웅81 △박종열71 △손총기79  
△윤옥경75 △이사목52 △정병희52  
△정원박74 △하두봉56  
◆보대원 △김문선02 △박대근63  
△박창진70 △이규한63 △정상호99  
◆사대원 △전도영68  
◆신대원 △황영일70  
◆행대원 △연기호67 △윤일균69  
△최계순65◆환대원 △안계동84  
◆AMP △고진호74 △김기만63  
△김봉규20 △김세래46 △김원길73  
△김종엽28 △김혜삼51 △남기욱32  
△도동환26 △류래경69 △류영하46  
△류재명34 △문창복52 △민경서48  
△박태화1 △서종덕12 △송용현72  
△송원중63 △신성우32 △심계진36△안상태46 △오병제21 △유재만17  
△윤영호11 △이세탁45 △이시용31  
△이한규23 △이호수35 △장호성69  
△전용우65 △전현찬44 △정광훈47  
△조내벽31 △조용호41 △조인수74  
△최광은73 △최영수46 △하재준11  
△한규범42 △한재열22◆AIP △권오석3 △김동하29  
△김승겸16 △김용석25 △김윤필32  
△문세웅42 △박만홍38 △박영식28  
△박장식27 △심종택15 △유길상9  
△이대만24 △이동명42 △이상원20  
△이선규38 △이의현20 △전준선34  
△정창현20 △조병오17 △최재동20  
△현정원19◆ACAD △강부자37 △곽광철5  
△김기영49 △김충현18 △김태완44  
△김태환38 △노희찬33 △명재선60  
△방동식27 △서정권2 △안근일68  
△이동호24 △이양호18 △이진원29  
△이환성53 △정이조48 △조보현65  
△최광주55 △최병길11 △최종욱20◆ABP △유영희39 △이계용2  
△이삼희20 △이관철3  
◆SGS △김광두3 △김명수2  
△김영근6 △남궁근16 △신현식13  
△안기석10 △유종국24 △이창섭7◆HPM △곽정욱24 △김도연13  
△노동일7 △부영욱13 △양동근12  
△이승표29 △조경순12 △조길웅14  
△최병례21 △한훈섭10◆AMPP △신희백5 △장필순10  
△조현국12 △홍석우9  
◆AIC △권태영1 △신양민24  
△이경의5 △이찬재6 △홍석기9  
△홍윤기1◆AFB △김종철9 △배성철7  
△서문환9 △윤상배10  
◆AMPFRI △류돈희3 △유영기23  
△이규태14 △최창혁4 △최평호28◆ACPMP △이동찬8 △정세화9  
△하진욱7  
◆GLP △공한철10 △김동만15  
△김익환20 △김인식20 △김제호17  
△신용식17 △오석송19 △이석성6  
△이정우13 △정용태9 △정현치20  
△조찬호22 △주호덕11◆ALP △김기식5 △김인숙16  
△김해연15 △양준호11 △장덕근16  
△최종천16  
◆SPARC △김유경2 △석종호19  
△손화현14 △이중우8 △전동훈1◆AFP △진화근8  
◆ASP △고금순9  
◆IFP △김대하1 △김문학5  
◆BCP △강예규7 △김영순10  
△김한기3  
◆ABKI △김진학2 △최장영3(이상 10월 9일까지 톨커데이  
협찬금을 출연해주신 분, 이후 명  
단은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 일본지부 결성 확약하는 화합의 장 열려

## 동경서 林光洙회장·李丙琪대사 환영회



둘째 줄 좌로부터 다섯 번째 오사카지부 金一男회장, 李丙琪 駐日대사, 林光洙회장, 동경지부 尹仁虎회장

본회 林光洙회장과 孔大植·禹仁性부회장 등이 동경지부동창회의 초청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 동안 동경을 방문했다. 순방단은 첫날 동경 제국호텔에서 열린 환영회에 참석해 재일 동문들을 격려하고 동창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튿날 동경대를 방문해 에가와 마사코 부총장을 비롯한 동경대총동창회 관계자들과 양교 총동창회 간 협력 방안을 주제로 회담을 가졌다.

### 동경·오사카지부 한자리

동경지부동창회(회장 尹仁虎)는 지난 10월 10일 동경 제국호텔에서 본회 林光洙회장 및 李丙琪 駐日대사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빈인 林光洙회장과 李丙琪(외교66-71) 駐日대사, 본회 순방단을 비롯해 동경지부 金富鉉(금속공학46-50)·卞周浩(화학48-53)고문, 尹仁虎(기계공학67-71)회장, 오사카지부 金一男(법학69-73)회장, 牟大盛(법학71-75)부회장, 동경대 金道然(재료공학70-74)펠로우교수 등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尹仁虎회장은 환영사에서 “林光洙회장께서 모교와 총동창회를 위해 계속 공헌해 주시길 희망함과 동시에 李丙琪 駐日대사께서 한일 관계 발전에 많은 성과를 올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근면 성실한 국민성을 가진 나라인 일본에서도 서울대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탁월한 역량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고 계신 동문 여러분은 총동창회의 큰 자랑이자 모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첨병이기도 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일본 전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을 아우르는 일본지부 동창회의 창립이 순조롭게 논의되고, 향후 동문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행사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줄 좌로부터 禹仁性·尹仁虎·林光洙·牟大盛·孔大植동문, 뒷줄 좌로부터 玄東實·李恒久동문

이어 林光洙회장은 모교의 국립대학법인 출범, 2013 QS 세계대학평가 35위 선정 등과 본회의 개교 원년 찾기 운동, SNU장학빌딩 건립, 장학연구지원사업 및 ‘서울대 열린 강좌’ 공개 등 최근 수년간 모교와 총동창회가 이룩한 발전상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李丙琪 駐日대사는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서로에게 소중한 자산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한 뒤 “동창회가 남에게 배타적인 학연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인연을 만들어 가는 뜻깊은 모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 내년 3월 일본지부 창립

축사에 이어 오사카지부 金一男회장이 건배를 제의했다. 金회장은 “동경과 오사카지부가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이토록 뜻깊은 시간을 갖게 돼 매우 흐뭇하다”며 동문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선창했다.

이날 1부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교가를 제창하며 모교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고 동창회의 밝은 내일을 기약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참석한 동문 전원이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으며 격조했던 세월을 무색하게 하는 정담과 함께 풍성한 만찬을 나눴다.

한편 林光洙회장을 비롯한 본회 순방단은 10월 11일 동경 시내 음식점 ‘토후야 우카이’에서 동경지부 尹仁虎회장, 玄東實(대학원77

입)부회장, 李恒久(기계공학68입)섭외간사, 오사카지부 牟大盛부회장 등과 임원 만찬을 갖고 동창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玄東實부회장의 초청으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 林光洙회장은 본회가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의 당위성과 성과, 향후 계획 전반을 설명해 깊은 공감과 찬사를 받았다.

이날 林光洙회장의 증재로 동경과 오사카지부의 오랜 난제들이 해결됐을 뿐 아니라 일본지부동창회 창립 계획을 이날 본회 순방단에



앞줄 좌로부터 본회 孔大植부회장, 동경대 에가와 마사코 부총장, 본회 林光洙회장, 동경지부 尹仁虎회장

## 본회 회장단 동경대 방문

### 양교 동창회 교류 방안 논의

지난 10월 11일 일본 도쿄도 본교區에 위치한 동경대 혼고캠퍼스 본부동 12층 중회의실에서 본회 임원진과 동경대총동창회 관계자가 회담을 갖고 양교 동창회 간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본회 林光洙회장을 비롯해 孔大植·禹仁性부회장, 동경지부 尹仁虎회장, 安隆模(전자공학76졸)부회장 겸 사무총장, 오사카지부 牟大盛부회장 과 동경대 에가와 마사코 부총장 겸 동창회 부회장, 야마지 카즈타카·칸자와 슌스케·시마다 히사야·후쿠미 카즈코 씨 등 임원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林光洙회장은 본회의 주요 사업 추진 성과와 다양한 행사, 동문들의 열정적인 참여 등에 대해

설명해 동경대총동창회 관계자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이날 양교 동창회 관계자들은 양국 현지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본회가 매년 주최하는 홈커밍데이 행사에 駐韓 동경대총동창회 임원이 참석해 친목을 다지는 방안과 더불어 일본 내에서 동경대총동창회가 주최하는 홈커밍데이 행사에 본회 일본지부 임원이 참석하는 방안 등 다양한 교류 방법 및 협력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동경대 혼고캠퍼스에서 열린 동경대총동창회 홈커밍데이 행사에 동경지부 徐定煥(자원공학89-93)총무가 참석해 친목을 도모했다.

보고함으로써 재일 동문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동창회 조직의 출범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양 지부 동창회는 2년 단위로 번갈아 일본지부동창회 집행부 권한을 맡는 기본 운영 방안에

합의했으며, 2014년 3월 일본지부동창회 창립총회 개최 이전까지 집행부 결성, 회칙 제정, 활동 방향 등을 본회의 참여 및 지도하에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載)

## 제16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여러 이웃 동문에게도 널리 알려 많은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       | 시 상 부 문                                                           |
|-------|-------------------------------------------------------------------|
| 참 여 상 |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
| 협 력 상 |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의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동문·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
| 영 광 상 |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

1. 시상 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1) 접수마감 : 2014년 1월 31일

2) 접 수 처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415호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전화 : 02-702-2233·팩스 : 02-703-0755)

4. 시상 시기 :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2014년 3월 21일)

###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 건강을 위한 9가지 조언

건강관리를 한다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보양식이나 보약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몸이 허약한 노약자라면 모르지만 멀쩡한 사람이 몸에 좋다는 것만 찾고 건강 걱정으로 날을 보내다면 주변 사람들마저 괴롭게 만드는 ‘건강염려증 환자’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

평소의 생활습관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면 지키기 어렵지 않고 특별히 성가실 것도 없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의 원칙들을 알고 그것을 내게 길들여야 한다.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에 소개된 ‘내 몸에 익숙해지면 좋은 건강관리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잠을 충분히 자라.
- ② 숲속을 걸어라.
- ③ 조리하는 시간을 줄여서 영양분을 높여라.
- ④ 마음을 편히 가져라.
- ⑤ 몸에 나쁜 담배를 끊어라.
- ⑥ 해독용 음료를 끊어라.
- ⑦ 헬스클럽에 등록하라.
- ⑧ 치과질환을 예방하라.
- ⑨ 값비싼 슈퍼 푸드를 끊어라.

대개 익히 알고 있는 것이어서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수면부족은 몸을 쇠약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잠이 부족하면 몸의 면역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이 맑지 못해 일상생활 중 사고를 당할 위험도 커진다. 기력이 부족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격이 소극적으로 될 수 있고 우울증과 불안감이 커진다. 밥잡을 방해받지 않으려면 늦은 오후시간대에 커피나 차,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게 좋다.

숲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추천한다. 숲속에서는 걷는 것뿐 아니라 얼마 동안 앉아 있기만 해도 이롭다. 맑은 공기와 풍부한 산소, 피톤치드 같은 물질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말기암 진단을 받고 숲으로 들어가 목숨을 구하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람들의 사례는 수없이 많다.

요리할 때 조리시간을 줄이면 재료에 들어 있는 영양분이 남아 있을 확률은 높아진다. 특히 채소류는 가열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좋다. 끓는 물에 살짝 담갔다가 바로 꺼내는 정도로 하면 영양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고 연료비도 절감된다. 물에 삶기보다는 찌는 게 더 좋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인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명상의 습관을 갖는 것도 좋다.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사 먹을 필요가 있을까. 신선한 채소와 제철 과일을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 건강박사 유태종의 9988 건강습관(리스컴刊)에서 —



## 장학연구지원사업 1차년도 성과 발표

###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혁신...’ 주제

본회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총괄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 모교 관악캠퍼스 61동 교수학습개발센터(CTL) 320호·121호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혁신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성과발표회를 가졌다.

모교 교무처와 CTL이 주관한 이날 발표회에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尹勤煥·辛鉉雄·孔大植·姜寅求·李炯均부회장, 관악회 鄭啓泳이사를 비롯해 모교 李基俊 前총장과 任廷基기획부총장을 비롯한 총괄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 洪起玄교무처장과 학내외 교직원 및 본보 金哲洙·宋丙洛·尹在錫논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任廷基기획부총장은 환영사에서 “각 사업 공모에 이어진 많은 지원들은 잠재적인 교육 혁신의 수요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며 “이번 사업이 고등교육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지금까지 공개된 장학연구지원사업의 중간성과는 대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며 “앞으로 4년간 진행될 장학연구지원사업이 해를 거듭하며 더욱 높은 수준의 학과 및 학부와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냄으로써 모교에서도 하버드대의

마이클 샌델 교수나 예일대의 쉐리 케이건 교수처럼 세계적 명성을 얻는 교수진이 대거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1차년도 장학연구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이날 발표회는 林哲一교육부처장의 경과보고 이후 장학연구지원사업의 주축인 ‘교수 강의 동영상 사업’과 ‘교육혁신 프로그램’의 두 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교수 강의 동영상 사업’ 세션에서는 모교 CTL 金善永연구교수의 ‘서울대학교 열린 강좌 개발 및 향후 발전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모교 崔善浩·朴贊國교수 및 KAIST 李泰億교수(산업공학76-80)와 성균관대 교육개발센터 李商銀(지구과학교육92-96)책임연구원이 참여해 교내외의 교수 강의 동영상 콘텐츠 개발 및 활용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 121호에서 동시에 진행된 ‘교육혁신 프로그램’ 세션에서는 모교 자유전공학부 김범수 교수를 비롯한 8명의 모교 교수들이 ‘학생 참여형 창의융합 전공 트랙’, ‘서울대생을 위한 고전 교육 강화’ 등 각 단과대학별 교육혁신 프로그램의 성과를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교육혁신 소위원회

### 2차년도 사업 예비 선정

본회는 지난 10월 21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오크룸에서 장학연구지원사업 교육혁신 프로그램 소위원회 2013년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모교 林哲一교육부처장, 기초교육원 姜秉南부원장, 사회대 林昶勳교무부학장, 언어학과 李豪榮교수, 산업공학과 洪裕錫교수를 비롯해 본회 孔大植·辛鉉雄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위원 중 金演洙교수는 개인 일정상 불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1차년도 교육혁신 프로그램 사업 성과의 예비심사와 2차년도 신규 사업 선정의 두 가지 안건에 대해 토의했다.

개발 완료된 1차년도의 8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차년도 총사업비 6억 중의 일부를 운영비로 지원하되, 프로젝트별로 사업비를 조정해 배분하기로 했다.

2차년도에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한 학과별로 전년도 탈락 여부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사업 제안서를 토대로 사업의 확산가능성, 창의력과 융합 역량 등을 검토한 다음 신규 프로젝트에 할당된 예산을 고려해 6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예비 선정했다. 이날 선정한 내용은 10월 25일 총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秀)



##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총괄위원회

### 2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 최종 심의

본회는 지난 10월 25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에뮬아르룸에서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총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공동위원장인 모교 李基俊 前총장과 任廷基기획부총장을 비롯해 전주대 高健 前총장, 한동대 崔道成부총장, 본회 辛鉉雄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모교 평의원회 朴鍾根의장, 李在影학생처장, 林哲一교육부처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1일 교육혁신 프로그램 소위원회에서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업에 관해 예비심사·선정했던 사항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참석자들은 가능한 많은 학과에 교육의 혁신과 콘텐츠 개발의 기회를 준다는 사업의 초기 취지를

이어가기 위해서 기존 콘텐츠나 시스템보다는 새로운 내용을 시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더 우선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2차년도에 진행될 사업으로 기초교육원의 ‘글쓰는 관악인’ 등 8개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했으며, 2차년도 총사업비 6억 중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비는 4억5천만원 규모로 지급하고 1차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고지한 대로 2차년도까지 운영비를 지원하되 총 1억5천만원 내에서 각 단과대에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또 2차년도 신규 사업을 포함해 향후 각 사업년도에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해당 사업년도 안에서 마무리짓고 이후 운영비는 자체 재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대한 지침도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

## 회비를 납부해주신 동문께

### 2014년 포켓용 DIARY·탁상용 달력을 드립니다

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포켓용 DIARY’와 ‘탁상용 캘린더’를 준비했습니다.

동창회 DIARY와 캘린더는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주신 동문께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 甲午年의 설계와 구상을 동창회 DIARY와 캘린더로 준비하시고 보람찬 새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동창회를 사랑해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총동창회

## 모교 역사 자료 수집에 동문 48명 기증



본회와 모교 기록관이 진행하고 있는 모교 역사기념관 건립 자료 수집에 지난 10월 1~31일 11명의 동문이 추가로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 9월 30일 이전에 기증한 동문 37명(본보 421호 8면, 422호 4면, 423호·424호·425호 6면, 426호 8면, 427호 7면 게재)을 통합해 현재까지 총 48명의 동문이 소중한 자료를 보내왔다. 추가 기증자와 접수품은 다음과 같다.

▲韓義泳(경제49-54)동문: 경영대 소식지, 졸업 앨범, 70년대 중반~90년대 경영대 관계철 및 대학원위원회 관계철, 대학원 논문 기출 자

격시험문제류 등 ▲朴長淳(역사교육52-57)동문: 졸업 앨범, 사대 학보 창간호, 총동창회 이사 임명장 ▲金晶洙(치의학54-58)동문: 입학시험 수험표, 합격 증명서, 2·3·4학년 학생증, 졸업 앨범, 졸업증서, 박사학위 시험 수험표 및 논문심사료 영수증, 박사학위기 ▲金哲偉(치의학57-61)동문: 졸업 앨범 외 기타 자료(13박스) ▲李炯均(정치59-64)동문: 대학 교재 13권(財政學概論, 政治思想史, 國家論, 國際經濟學, 經濟原論, 西洋法制史, 新民法總則, 憲法, 新經濟原論, 新韓國憲法, 現代政治學概論, 近世哲學思潮, 世界의 地名) (사진) ▲曹龍煥(광산60-64)동문: 졸업 앨범, 졸업식순, 성적표, 교표 ▲李鍾國(물리61-68)동문: 수업노트류, 입학고사 수험표, 등록금 영수증, 도서관증, 총장 발행 가정통신문류, 문리대 학보 등 ▲金永聲(지리62-66)동문: 지리학보 1집(1962년), 산정1~3(지리학과 62학번 문집), 학생모집 요강(1963년)의 9점 ▲鄭東俊(행대원65-67)동문: 개교 20·50주년 기념품류, 행대원 50주년 기념품류, 총동창 명부 및 회원명부류, 수첩, 명패, 소식지 등 ▲朱南哲(건축69-77)동문: 박사과정 및 외국어시험 수험표, 건축학과 기념패 등 ▲安愛淑(가정관리80-84)동문: 가정대 관련 팸플릿 및 심포지엄 책자류, 가정대 동창회 기념품류 등

##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회장 임광수)와 서울대(총장 오연천)는 2015년에 맞을 개학 120주년을 계기로 모교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서울대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동문과 가족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 대상: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1) 문서류: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2) 시청각물류: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3) 간행물류: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4) 박물관: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사패, 현판,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5) 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 기간: 2013년 12월 31일까지

3. 수집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 화 : 02-702-2233 팩스 : 02-703-0755 E-mail : webmaster@snu.ac.kr  
주 소 : (151-919)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4-2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416호  
담당자 : 임성용 과장 핸드폰 : 010-2319-3925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 화 : 02-880-8819 팩스 : 02-884-7149 E-mail : archives@snu.ac.kr  
주 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자 : 김봉은 전문위원 핸드폰 : 010-3032-5913

5. 제공자 혜택: 역사기념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임광수·서울대학교 총장 오연천



## 마로니에의 옛 캠퍼스 홈커밍

### 대학원동창회

대학원동창회(회장 崔鍾庫)는 명예교수협의회(회장 李壽成)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12일 서울 해화동 마로니에공원에서 ‘마로니에의 추억을 찾아서’란 주제로 홈커밍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동아쏘시오그룹 姜信浩회장,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李相赫·丁海昌부회장, 미주동창회 및 仁煥회장, 모교 李俊植연구부총장, 崔滿麟·李泰鎭·安三煥명예교수, 權寧彬한국문화예술위원장 등을 비롯해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모교 COE 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명예교수협의회 李仁圭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근대 조국의 역사현장인 이곳을 보존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조국의 방방곡곡, 세계 곳곳에서 젊음과 열정을 뿌리던 고통스럽던 기억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젊은 날의 추억을 되살려 꿈과 낭만, 기개가 넘쳤던 학창시절이 서려 있는 모교의 터전을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보람된 하루를 지내시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모교 吳然天총장을 대신해 참석한 李俊植연구부총장은 축사에서 “과거의 서울대가 현재 서울대의 자양분이 됐고 현재 서울대는 미래 서울대의 도약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교는 우리 사회의 번영과 행복에 기여하는 창조적, 지적 공동체로 거듭나서 여러분들의 동문이라는 가치와 자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고의 후원자가 되는 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은 “시인

릴케는 ‘추억을 보다 더 가슴속으로 깊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는 얘기를 했다”며 “이렇게 되돌아보면 진짜 스승之感이고 여러 가지 애환이 지금도 가슴을 아프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어가 거슬러 올라와 모전을 찾듯이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앞으로도 이 모임이 계속 됐으면 한다”며 “오늘 서로 이 자리를 통해 추억을 되새기고 우의를 영결케 하시면서 吳然天총장이 동문서주하시는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담화를 하셔서 보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축하했다.

이어 崔鍾庫회장이 폐회사를 통해 “모교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후 이곳은 대학로 문화의 상징이 됐다”며 “우리

### 옛 풍경 사진 관람 후 단과대 유적지 투어 학림다방서 추억 떠올려

나라는 너무 빨리 변하는 것이 아쉽지만 이왕 젊은 문화의 상징인 마로니에 공원이 됐으니 격조 있는 문화 공간으로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모교 전통의 이름으로 이것을 중심으로 기원하는 것이 오늘 모임이 단순히 회고로만 그치지 않을 뜻깊은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옛 캠퍼스의 풍경을 담은 사진전을 관람한 뒤 옛 본부건물, 구름다리, 배대유적지, 미대유적지, 의대시계탑, 의학박물관 순으로 동송동 옛 캠퍼스 투어를 했다. 투어의 마지막 순서로 마로니에공원 앞 ‘학림’다방에 들러 차를 마시며 학창시절을 회상했다.

참석자들은 姜信浩회장이 주최한 ‘마로니에 여성백일장’을 관람한 후 예술가의 집(구 본관건물) 정원에 모여 본회 林光洙회장이 협찬한 다과와 함께 간단한 만찬을 들며 화가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담을 나눴다.

### 모교 방문 행사 열어 간호대동창회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梁光姬)는 지난 10월 14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 강당에서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 30·40·50주년 기념 모교 방문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모교 간호대 朴賢愛학장의

축사에 이어 崔庚淑부회장이 환영사를 전했으며 동창회 발전기금 전달식 및 기념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또 동문들은 환영 오찬에 참석해 정담을 나누며 식사를 한 뒤 캠퍼스를 돌아보고 간호대 박물관을 관람했다.

이어진 환영 행사에서는 간호대 음악동아리와 졸업 30주년을 맞은 동문들의 흥겨운 공연이 펼쳐져 열띤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邊)



## 9회 동문연주회 성황리 개최

### 음대동창회

음악대학동창회(회장 申秀貞) 이날 본회 林光洙회장을 대신한

는 지난 10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제9회 동문 연주회를 개최했다.

孔大植부회장과 음대동창회 徐桂淑고문, 申秀貞회장 등 5백여 명의 동문과 관객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林光洙회장은 이번 연주회와 관련해 ““제9회 동문연주회”가 모교 개학 118주년, 통합개교 67주년을 기념해서 개최된 것을 진심의

로 축하한다”며 “7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연주회를 준비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음대동창회 申秀貞회장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는 축사를 전했다.

이번 연주회에서 각 프로그램 사이에 申秀貞회장이 해설을 맡아 관객의 이해를 도왔다. 모교 음대 金泳律(기악76-80)학장이 지휘한 관악 합주, 전주시립교향악단 姜頌熙(작곡82-86)지휘자가 지휘를 맡은 현악 합주, 전통음악 ‘咸寧之曲’ 및 판소리 춘향가 등 국악과 합창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연이은 박수와 큰 환호를 이끌어냈다.

### 朴明潤·李幸子특지장학회 재학생 3명 연구비 전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朴明潤(보대원74-76 관악회 이사)이사장은 지난 10월 11일 모교 보건대학원 회의실에서 보대원 權純晩원장 등 교수진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2학기 ‘朴明潤·李幸子특지장학회’ 연구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차이사장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徐粹涎(보대원02-05)동문에게 1백만원, 석사과정 중인 李東祐·劉아름 학생에게 각각 50만원을 전달하고 학업에 열중한 것을 당부했다.

## 함춘미술전·도서기증식 열어

### 의대동창회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晔)는 지난 10월 7~13일 모교 연건캠퍼스 함춘회관 3층 가전홀에서 제11회 함춘미술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19명의 의대 동문들이 출품한 회화(서양화) 18

점, 사진 10점, 서예 8점 등 총 36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한편 동창회는 10월 8일 모교 연건캠퍼스 의학도서관 함춘재에서 도서기증식을 갖고 의학전문도서 2백76종 4백36권을 기증했다.

동창회는 매년 모교 의학도서관에 3천만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해 오고 있다.



### 동문 작품

### 지 상 전 시 회

### 趙 溫 英 作

#### 〈작 가 약 력〉

- ▲1974~1978년 모교 회화과 졸업
- ▲개인전 2회
- ▲제19~2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출품 등 단체전 다수
- ▲現훈율회·서울 봄전·우리가까이전·갑인동인행전 회원

자화상, Mixed Media, 45×55cm, 2013년

### 추계 회장배 골프대회 대구·경북지부동창회

대구·경북지부동창회(회장 崔敬鎮)는 지난 10월 26일 경북 청도군 그레이스CC에서 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崔회장은 “정말 좋은 날씨에 동문들 간의 격의 없는 대화와 친목을 가지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5월에 이어 동창회 골프모임인 관악회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 崔敬鎮(의학68-74)회장과 鄭鏞哲(산업공학69-73)동문의 시타를 시작으로 동문들이 열띤 시합을 벌였다.

이날 80타를 기록한 郭祥哲(기계설계76-80)동문이 대상을 차지해 우승트로피를 안았으며, 참석한 모든 동문들이 참가상으로 색깔 골프공 1조와 오크세트를 받았다.

지난 2012년부터 활동을 재개한 대구·경북지부 관악회는 5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으로 매월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골프에 관심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동문은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 동문가족 만남의 날 부산지부동창회

부산지부동창회(회장 安永求)는 지난 10월 20일 경남 양산시 영산대 야외 잔디광장에서 동문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安永求(공업교육65-69)회장과 權鍾大(치의학72-78)사무처장, 각 단과대별 총무를 비롯한 1백50여 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에는 천성산을 등반하며 가을 산행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 가을 정기총회 가져 안양지부동창회

안양지부동창회(회장 金昌範)는 지난 10월 22일 안양동 어반부띠크호텔 컨벤션홀에서 金昌範회장, 朴榮麟·張永蘭·柳龍茂·鄭祥喆부회장, 金雲基사무국장 등 동문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특별공연으로 張永蘭부회장의 성악 공연과 鄭祥喆부회장의 클라리넷 연주가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돋우는 가운데 동문들은 정담을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 31회 동창의 날 행사 약대동창회

약학대학동창회(회장 千文字)는 지난 10월 13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앞 잔디마당에서 제31회 약대 동창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千文字회장을 비롯해 모교 약대 李奉振학장 등 1백60여 명의 동문들이 가족들과 함께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동문 친선 바둑대회 상대동창회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成耆鶴)는 지난 10월 19일 서울 흥익동 한국기원에서 제12회 동문 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인전 52명, 단체전 13팀 39명 등 총 91명의 동문이 참석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력을 겨루며 친목을 다졌다.

千文字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30년 넘게 진행돼 온 우리의 동창의 날 행사가 이제는 완전히 자리잡은 것 같아 가슴이 벅차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참석하는 동문들의 연령층이 더 젊어졌으면 좋겠고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동문들이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이 찾아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어 지난 7월 임명된 신임 李奉振학장과 모교 교수진들의 소개와 인사가 있었다. 오후에는 명랑

운동회를 개최해 동문들과 가족들이 게임을 즐기며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동창회에서 기획해 진행 중인 ‘멘토-멘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몇몇 멘토와 멘티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멘토-멘티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그 성과를 보고했으며 동문 선배와 재학생 후배가 멘토와 멘티가 돼 함께 어우러진 모습은 동문들에게 흐뭇함을 자아냈다.

이번 대회를 위해 한세에스24홀딩스 金東寧(경제64-68)회장이 2인용 영화에매권 10매를, 成耆鶴회장이 노스페이스 패딩조끼 18벌을, 쌍육기우회에서 1백만원을, 하나은행 李炯一(경영82-86)PB본부장이 50만원 상당의 다과를 협찬했다.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체전 : 우승 40회 뒗斗煥(국제경제82-89)·尹同鉉(국제경제82-89)·張泰熊(국제경제82-

86)동문, 2위 22회 李奎浩(상학64-68)·趙源玖(경제64-68)·黃光勳(경제64-69)동문, 3위 24회 金相男(경제66-70)·延健昊(상학66-70)·張泰翼(상학66-70)동문 △개인전 A조 : 우승 朴永根(경영79-83)동문, 2위 宋寅星(상학64-71)동문, 3위 金僞鎬(무역68-72)동문 △개인전 B조 : 우승 李桂洪(경제55-59)동문, 2위 羅公默(상학56-61)동문, 3위 安炯玉(상학66-70)동문 (載)



## 총회 및 모교 방문의 날 행사

### 수의대동창회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李文漢)는 지난 10월 6일 모교 관악캠퍼스 수의대 스포필드홀에서李文漢회장과 모교 수의대柳判童학장을 비롯한 동문과 가족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정기총회 및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 시상식에서金顯英(수의학58-62)·

朴龍浩(수의학74-78)·趙榮植(수의학80-84)동문 등 3명의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했으며李角模(수의학64-69)·李炳熙(수의학75-79)동문에게 공로패를,李相滿(수의학48-56)·李柄千(수의학83-87)동문에게 감사패와 선물을 전달했다.

또 69학번 동기회林國煥(수의학69-73)회장과 86학번 동기회金東郁(수의학86-92)회장이 각각 동창회 장학기금 5백만원과 1천만원 약정서를 동창회에 전달했다.



### 51회 정기전 열어 낙우조각회

모교 미술대학 조소과 동문들로 구성된 낙우조각회(회장鄭妍姬)는 지난 10월 23일 서울 태평로1가 조선일보미술관에서 미대동창회金鳳九회장, 낙우조각회鄭妍姬회장 등 50여 명의 동문과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정기 전시회 및 창립 50주년 기념회지 '낙우조각III'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지난 1963년金鳳九회장 등 모교 조소과 출신 조각가 6명이 모여 결성한 낙우조각회는 창립 이래 매년 정기전과 기획전을 갖고 있다. 조각회의 세 번째 회지인 낙우조각III는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착수한 기념회지 편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 회원 및 일반에 공개됐다.

새내기 작가부터 중견 작가까지 43명의 회원이 출품한 이번 정기전은 10월 28일까지 이어졌으며,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미술계와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체육대회서 화합 다져 AMPFRI동창회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朴恩熙)는 지난 10월 19일 서울 광장동 광장중학교에서 본회孫一根상임부회장,孔大植부회장, AMPFRI동창회朴恩熙회장, 모교 보대원權純晩학장 등 1백2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제16회 한마



朴恩熙회장(右)이 모교 보대원李承旭명예교수에게 감사패 수여

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朴恩熙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행사가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동문 여러분의 자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孫一根상임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AMPFRI동창회의 행사는 매우 모범적으로 치러지고 있다”며 “심신의 쉼 때를 모두 털고 마음을 활짝 열어 동문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문들은 ‘도전 골든벨’, ‘코믹게주’ 등 다양한 경기 프로그램과 축하 공연을 즐겼다.

### 吳元錫회장 연임 기계동문회

기계동문회(회장吳元錫)는 지난 10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차세대자동차연구소에서 吳元錫(기계공학71-75)회장 등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관악산 등반 일정을 마친 후 열린 총회에서 2013년 사업 및 회무 보고와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또 임원 개선을 통해 吳元錫회장과柳長壽(기계공학72-76)수석부회장,朱榮涉(기계공학74-78)간사장에 대한 연임을 가결했다. (載)



#### 달팽이와 거북의 세상

길을 건너가던 달팽이가 그만 거북에게 치였다.  
응급실에 옮겨져서 의식을 회복한 달팽이를 보고 어쩌다가 사고를 당한 거냐고 물었다.  
“이거 정말이지 생각 안 나네요. 워낙 급히 일어난 일이라서요!”

#### 구두쇠가 택시 타는 법

구두쇠 : 공항까지 얼마예요?  
택시기사 : 5만원이요.  
구두쇠 : 집에도 요금이 불나요?  
택시기사 : 집은 물론 공짜죠.

#### 구두쇠 : 좋아요. 그럼 이 짐만 가져가세요. 전 버스 타고 갈게요.

#### 천국으로 가는 길

목사가 우체국 가는 길을 묻자 아이가 길을 가르쳐 주었다.  
목사는, “참 예의가 바른 아이로구나.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테니 설교를 들으러 오지 않겠니?”라고 하자.  
그 아이는,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아저씨는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잖아요?”

(독자제보 환영)

대표이사 김혜정 [82人 독어독문]

매 듀오  
www.duo.co.kr

# 1년안에 당신도 결혼해 듀오

● 점유율 63.2%, 매출 1위  
(주요 4개 업체간 2010년 매출액 기준)

● 성혼회원수 27,586명  
(2013년 10월 21일 기준)

\*성혼회원수는 듀오에 가입된 남녀회원 간의 누적 성혼수입니다 (1995.2.14~2013.10.21)  
\*위 그래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의결서(2012.3.29)에 들어있는 표 '주요 결혼정보업체의 일반인원'의 수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국대표결혼정보회사 듀오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수원/천안/울산/창원/전주/LA/뉴욕/뉴질랜드

전국공통 재혼/노블레스 1577-8333



**TIMBUK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77 (순인빌딩4~5F) (주)앤빌 TEL : 080-541-5000  
[www.attopangea.com](http://www.attopangea.com) | 공식주입처 : (주)앤빌

아토판치아 강남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25-20 TEL. 02-512-6935  
 아토판치아 종로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77 TEL. 070-2266-6935

공식판매처 : 아토판치아 (CLK macpac TIMBUK2 blur) 를 공식판매하는 아웃도어 멀티샵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규직 공개채용 공고

ETRI는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성과 관련 융·복합기술 분야의 산업원천 기술 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 1. 모집 내용

- 1) 채용 직종 : 연구직 (일반 연구직 및 전문연구요원 신규채용 대상자), 기술직(번역사) 및 행정직
- 2) 채용 인원 : 36명 이내
  - 일반연구직 : 24명 이내
  -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신규채용대상자 : 8명 이내
  - 기술직 : 1명 이내
  - 행정직 : 3명 이내
- 3) 모집 분야 : 총 21개 모집 분야 (세부 사항은 ETRI 채용 홈페이지 참조)
  - 일반연구직(11개 분야), 전문연구요원 신규채용(8개 분야), 기술직(1개 분야), 행정직(1개 분야)
  - ※ [www.etri.re.kr](http://www.etri.re.kr) → "인력채용" → 정규직 채용 → 모집분야 참조
- 3) 지원 자격 : ○ 공통 지원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연구원 규정에 의한 임용 자격사항이 있는 자
  - 자격사유 예시 -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신체검사 결과 채용상적으로 판단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등

## 직종별 지원 자격

| 직 종              | 인 원           | 자 격 요 건                                                                                                              | 비 고                |
|------------------|---------------|----------------------------------------------------------------------------------------------------------------------|--------------------|
| 연구직              | 일반 연구직 24명 이내 | -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                                                                                                       | 홈페이지<br>모집분야<br>참고 |
| 전문연구요원<br>(병역특례) | 8명 이내         | - 관련분야 석사 이상<br>- 전문연구요원 신규채용대상자로서 자격사항이 없는 자<br>※ 1982.12.31. 이전 출생자 지원불가                                           |                    |
| 기술직              | 1명 이내         | - 전공분야 : 학력무관, 전공불문<br>- 번역사 자격증 소지자                                                                                 |                    |
| 행정직              | 3명 이내         | - 전공분야 : 학력무관, 전공불문<br>- 어학능력 : TOEIC 800, TOEFL(IBT) 91, TEPS 637, G-TELP level 1의 50 / level 2의 76 / level 3의 99이상 |                    |

- ※ 관련분야 학위 취득자 또는 2014년 2월 학위 취득 예정자
- ※ 국외 학위자의 경우, 2014년 6월 1일까지 학위 취득 후 증명서 제출 및 임용 가능한 자
- ※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 합격 후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 취소

## 2. 전형 방법

- 1) 1차 : 서류전형
- 2) 2차 : 전공면접
- 3) 3차 : 종합면접 (인·적성 검사 포함)

## 3. 제출 서류

- (1) 인사지원서 1부 (소정양식, 연구원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 유형별 Download)
- (2)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연구원 채용 홈페이지에서 Download)
- (3) 지도교수(교사) 또는 직장상사 추천서 1부 (자유양식, 3개월 이내 작성분)
- (4) 최종학위 (예정) 증명서 1부
- (5) 대학, 대학원 진학전 성적증명서 각 1부(교과를 제외한 경우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6) 최종학위 논문 요약본 1부(예정자)
- (7) 주요 연구실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
- (8) 경력증명서, 포상 등 증빙자료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9) 영어성적증명서(TOEIC, TOEFL, TEPS, G-TELP) 1부 (필수제출, 전수파견된 기술 유요한 증명서에 한함)
- ※ 영어성적증명서 제출 만지대장은 연구원 채용 홈페이지 참조
- (10) 주민등록초본 1부(정방점사 결과 또는 병역 여부 기재본, 여성은 제출 불필요)
- (1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보통) 및 복지카드(장애) 1부(해당자에 한함)
- (12) 번역사 자격증(기술직에 한함)
- ※ 지원서류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연구원 채용 홈페이지 참조 요망
- ※ 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접수 불가
- ※ 영어 이외의 제 2 외국어로 된 자료는 본인의 번역본을 함께 첨부

## 4. 제출 기한 및 문의처

- (1) 제출기간 : 2013.10.24(목) ~ 2013.11.22(금) (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2)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온라인 지원접수 불가)
- (3) 제 출 처 : (805-700) 대전시 유성구 가경로 2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사관리팀 정규직 채용담당자
- ※ 우편접수 접견에 인사지원서에 첨부된 "우편발송용 양식"을 붙여서 제출 및 발송
- (4) 문 의 처 : 연구직/기술직 채용 담당 - 042-860-5616 / sybyun@etri.re.kr
- 행정직 채용 담당 - 042-860-5331 / heewon@etri.re.kr
-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ETRI 채용 홈페이지 FAQ를 먼저 확인하신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기타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전향시 우대합니다. (증명서 제출 시)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영어성적표 중 TOEIC, TEPS는 사본 가능)
- 지원서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요 기재 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 중 입사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합격자 우선순위에 의거, 추가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류 작성 안내 및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 ([www.etri.re.kr](http://www.etri.re.kr)) → "인력채용" → "정규직 채용"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www.etri.re.kr](http://www.etri.re.kr)

SECURE  
HOT LINE

보안스마트폰(Secure Hot Line)이 귀하의 스마트폰을 도청과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보안스마트폰은 스마트폰 사용자 간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및 파일을 암호화 하여 도청과 해킹을 방지하여 주는 보안 제품입니다.

"미국 NSA 도청 파문 일파만파..." (2013년 10월 29일 국내 언론)  
"스마트폰 도청, 실시간 메일로 전송..." (2013년 2월 19일 SBS)  
"스마트폰 도청과 해킹은 현실이며,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청.해킹



"Spyware설치로  
손쉽게 스마트폰  
도청.해킹 가능!"



Secure Hot Line은 하드웨어 기반(HSM)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최고수준의 보안 기능을 제공 합니다.



스마트폰 내부에 마이크로SD카드 삽입 및 전용 App 설치 만으로 간편하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ISEC 2013** 에서 보안스마트폰을  
Information Security Conference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2013년 11월 18일(월)~19일(화) 09:00~18:00 | COEX 그랜드볼룸

최고 레벨 보안인증  
CC EAL5+와 FIPS 140-2 Level 3(In Review)

분실 시 안전  
데이터 암호화 저장, 분실 보안 스마트폰 사용 정지

별도 개인 전용번호 부여  
고객의 기존 이동통신 전화번호와 연동 안함

세계적으로 검증된 제품  
대만 총통 및 주요기관에서 사용 중

통화료 절감  
데이터 요금제 가입 시 m-VoIP사용으로 통화료 무료

기업 전용 보안 통신망 구축 가능  
전용 m-VoIP망 구축 및 전용국번 제공



개인 및 기업용 보안스마트폰을  
특별 판매 합니다.

02-571-6431



[www.securehotline.co.kr](http://www.securehotline.co.kr)

(주)무한비트 135-854 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 417-7 성민빌딩 2F  
TEL 02-571-6431 FAX 02-571-6432 E-mail info@muhanbit.com

## 화제의 동문

## 인술 펼쳐온 姜大鍵치과의사



지난 9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姜大鍵(치의학53-57)동문에게 교회와 교황을 위한 십자가 훈장을 수여했다. 국내에서 이 훈장을 받은 평신도는 10여 명 남짓으로 姜동문은 “천주교인으로서 정말 귀한 상을 저 같은 죄 많은 사람이 받았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저보다 훌륭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에게 주신 것이 백 번 천 번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당시 소감을 전했다.

姜원장은 1979년에 한센인들을 위한 치과 진료봉사를 시작해 지난해까지 33년간의 세월 동안 봉사해왔다. “예전에는 한센병 환자가 많아서 줄을 서서 진료를 받았었는데 요새는 환자를 찾아가야 할 정도입니다. 제 나이도 80이 넘으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작년까지는 진료봉사를 했지만 현재는 제 병원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센병 환자에 대한 무서움이 적지만 예전에는 전염된다는 인식 때문에 가급적 멀리하려는 성향이 강했다.

“당시 시대상으로는 한센인이 왔다는 걸 일반 환자들이 알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디에도 알리지 않고 진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터라 그때 당시 제 병원에 한센인이 왔었다면 진료를 못 했

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많이 변해서 요즘은 그들에게도 의료보험증이 있고, 의사로서 반드시 진료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센병의 발병률은 1970년대 후반 연간 8백명을 웃돌았지만 요즘은 연간 20명 정도로 급감했으며 발병해도 완치가 가능하고 전염력이 거의 없는 ‘퇴치된 질병’이다.

## 매주 일요일 한센인 정착촌 방문

姜원장은 매주 일요일마다 전국을 누비며 한센인들을 위한 삶을 살았다. 그 긴 시간 동안 가족들에게 가지고 있던 미안함을 토

로했다.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마음밖에 없습다. 가정에서 한 가장이 매 주일마다 봉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람이나 제 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 밑에서 성장해야 할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모습을 보면 참 가슴 아프기도 했습니다.”

姜원장은 40대 후반의 나이에 한센인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했다. “당시에 치과기공사와 치위생사들의 모임에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치과의사가 없어 저를 초대해서 가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한센인들을 본 적도 치료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 ‘교회와 교황을 위한 십자가 훈장’ 수훈

## 33년간 한센인 치과 무료 진료

막상 가서 그네들의 생활상이나 사회적인 환경을 보니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과의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계기로 저의 진료봉사가 시작됐습니다.”

姜원장은 한센인들이 있는 정착촌이면 전국을 가리지 않고 혈혈단신으로 진료봉사의 손길을 뻗었다.

“처음에 1년 정도야 기공사들이 같이 가서 접수부도 적어주고 도움을 줬지만 그 후로 30여 년간은 저 혼자 돌아다니며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는 진료의 대부분이 보철 치료인 한센인들에게 틀니 제작에 필요한 최소 비용만을 받아 5천여 개의 틀니를 제작해 줬다.

대구, 안양,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의 한센인 정착촌을 돌며 진료에 들어간 제반 비용을 제하고 조금이라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연말에 정산해 한센인 정착촌 마을을 위해 쓰일 수 있게 모두 전달했다.

##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 실천

姜원장은 본인의 병원 운영도 하면서 한 달에 하루 정도만 쉬어가며 봉사를 했다. 힘들 법도 했지만 긴 세월 동안 봉사하는 날에 아프거나 감기에 걸린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봉사는 참 힘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있었고,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자신이나 가족을 생각하면 당장 쉬어야겠지만 ‘이 세상에 나와서 하고 갈 것이 이것밖에 없다’, 나중에 절대자 앞에 갔을 때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내 마음과 몸을 바쳐서 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끝으로 봉사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과 모교 동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부탁했다.

“저희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분들에게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함 같이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듯이 너무 자기 직업에만 충실하지 말고 바깥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췄으면 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활동하는 것이 당장은 손해일지 몰라도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절대 손해가 아니라 득입니다. 많은 분에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邊)

## 웹툰작가 孫章源동문



요즘을 신선하고 강력한 문화 콘텐츠 중 하나는 ‘웹툰(webtoon)’이다. 인터넷에서 연재하는 만화를 뜻하는 웹툰은 손에 쥐고 한 장씩 넘겨 읽던 만화책 대신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감상할 수 있으며, 폭넓은 독자층을 기반으로 빈번히 영화와 드라마로도 각색되는 등 만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매체로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정식 연재 중인 2백50여 개의 웹툰 중 孫章源(자연과학95-99)동문이 지난 6월부터 포털사이트 ‘Daum’에 연재하고 있는 ‘달이 내린 산기슭’은 참신한 소재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의 흐름으로 화를 거듭할수록 호평을 받고 있다.

모교에서 고생물학 박사과정을 마친 독특한 배경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창작활동에 여념이 없는 孫동문을 그의 작업실에서 만났다.

## 만화 지식 위해 석·박사 받아

만화가로서 孫동문의 이름을 처음 알린 작품은 2008년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그린 단편 ‘여름이 지나간 자리’였다. 2010년 서울 국제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SICAF) 본선 진출작인 이 작품은 아마추어 만화가들이 창작 활동을 펼치는 웹사이트에서 4만5천여 건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주목받았다.

이어 2011년 유명 만화사인 학산문화사의 신인공모전에 출품한 단편 ‘산’이 당선

돼 데뷔한 그는 이 작품을 프롤로그 삼아 만화지에 장편 ‘달이 내린 산기슭’ 연재를 시작했고, 그 연재분을 묶어 2012년에 첫 단행본을 출간한 데 이어 현재는 웹툰으로 무대를 옮겨 활동 중이다.

‘달이 내린 산기슭’은 우리나라의 산하를 떠돌며 지층과 화석을 연구하는 지질학자 ‘오원경’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이다. 지질학과 고생물학 등 생소한 학문 분야가 자연스럽게 녹아든 그의 만화를 보며 독자들은 고생물학 전문가인 그의 깊은 지식을 어렵지 않게 가늠하곤 한다. 어릴 적부터 만화가를 꿈꿔오면서 과학도의 길을 걷게 된 계기에 대해 孫동문은 “흥미도 있었지만 만화를 그리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얻으

려 택한 전공”이라고 답했다.

“옛날 유럽의 박물관과 비슷하게 지구과학 분야는 창작에 두루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갔습니다. 현장에 나가 지층을 탐사하고 화석을 채취하는 필드 연구 중심이라는 점도 만화의 배경 설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만화가가 되겠다는 오랜 꿈과 전공 공부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 또한 그의 욕심으로 이뤄낸 것이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박사 논문과 만화책을 출판하는 흔치 않은 이력을 갖게 된 孫동문은 “만화를 그리며 논문과 비슷한 점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 고생물학 전공 과학도에서 만화가로 변신

## 포털 ‘Daum’에 ‘달이 내린 산기슭’ 연재

“논문과 만화는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각자의 문법에 맞춰 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또 가장 많이 연구한 소재로 논문을 썼듯이 가장 잘 아는 전공을 살려 지금의 작품을 그리고 있기에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자전적 요소가 다분히 담긴 그의 작품에는 지질학의 보고인 강원도 태백 등지를 다니며 연구하던 시절에 했던 생각들이 들어 있다. 지식과 경험에 만화적인 상상력을 가미하자 학문적 탐구 대상이었던 지층은 그의 만화 속에서 인간처럼 살아 움직이고 말하며 연구자와 소통하는 존재로 생동하게 됐다. 이는 광대한 지변을 지닌 웹툰의 독자층에게 친근히 다가갈 인기를 얻은 비결

## 화제의 동문

이기도 하다.

출판만화로 데뷔한 그는 온라인 연재를 시작하며 원고의 채색과 편집 등 기존의 방식과 달리 웹툰의 특성에 맞게 만화를 그리는 일에 바빠 적응하면서도 “무엇보다 댓글 등을 통해 내 만화를 보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반갑다”고 느끼는 중이다.

## 과학고 ‘그림자들’ 멤버와 활동

만화를 독학해 온 孫동문에게는 든든한 동반자들이 있다. 그가 과학고 재학 시절 결성한 만화동아리 ‘그림자들’의 멤버들은 모교에도 함께 진학해 창작 활동을 이어왔다. 애니메이션·영화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며 같은 작업실을 쓰는 지한솔(생명과학97-04)동문과 웹툰 ‘공갈동전’의 작가 최가야(기계항공97-01)동문 등은 만화계에서 나란히 활동하며 그에게 조언과 비평을 아끼지 않는 소중한 친구이자 동료들이다.

향후 활동에 대해 그는 첫 장편에서 가장 익숙한 소재를 다뤘으니 다음에는 로맨스, 액션, 판타지물 등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다양한 장르의 만화를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프로 만화가로서 당연한 말이라고 하면서도 단단한 포부를 전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만화, 재밌는 만화를 그리고자 합니다. 계속 열심히 그려겠습니다.” (秀)



여러분의 더 나은 삶과 함께 합니다

##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 기업 신세계조선호텔

1914년 서울의 중심부 소공동에 문을 연 조선호텔이 모태로,  
현재 호텔, 면세점, 외부 사업, 오피스 위탁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품격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SHINSEGAE CHOSUN HOTEL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 (주)신세계조선호텔 Tel:02)771-0500

# “이젠 한식·한글 등 ‘K-Culture’ 확산돼야”

동문록 찾아서

문화융성위원회 金東虎위원장

“국민 개개인의 삶을 문화로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10년, 20년이 아니라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문화강국을 향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번이 제가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맡은 임무를 완수할 생각입니다.”

1993년 문화부 차관을 끝으로 관직에서 물

러나 영화인의 삶을 살다가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金東虎(행정56-61)동문. 정통 관료 출신이지만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영화인으로 더 잘 알려진 그는 본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융성’을 위한 자신의 소임을 강조했다.



대담 : 李先敏(조선일보 선임기자)논설위원

— 문화융성위원회는 朴槿惠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발표한 4대 국정지표 중 하나였지요. ‘문화융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요.

“처음 문화정책이 시행됐던 1970년대 초에는 정부에서 ‘문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목표를 정하고 문화재 복원·보수부터 시작해 전통문화를 살리는 시기로 ‘문화중흥’의 뜻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화정책의 패러다임도 바뀌어 정부주도가 아닌 국민 개개인이 문화 활동의 주체가 돼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문화융성’은 국민의 삶을 문화로 풍요롭게 하자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죠.”

— 국민 개개인의 생활을 문화로 풍성하게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를 위해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대통령께 네 가지를 보고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 현장의 소리를 폭넓게 수렴해서 대통령께 전달하겠다는 뜻에서 소통과 융합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전통문화 및 인문정신문화 등 기초 학문과 예술을 진흥시키고 이를 학교와 사회 교육을 통해 확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예술과 IT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문화산업을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년, 20년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통일 이후에도 대비하는 문화강국을 향한 정책 기본 구상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할 일입니다.”

— 지난 7월 출범 이후 문화융성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목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 현장의 소리를 듣는 데 주력했습니다. 문화융성을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무엇이 제일 급한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문화예술계의 당면 현안을 살폈습니다. 또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된 문화융성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들을 통해 각 분야의 문제점을 듣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인문학 토론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현안 파악과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 앞으로의 활동 방향은.

“내년 1~2월 중에는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낙도와 오지 지역을 순회하면서 실태조사와 현지 의견 수렴을 거쳐 대책 마련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지방을 순회



## 소통과 융합 강조...현장의 소리 수렴 ‘50년 민·관을 아우른 문화 경험’ 강점

하면서 절감한 것은 문화정책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상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연초에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과 소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동시에 듣는 여론조사와 문화계 생태조사를 병행한 뒤 거기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문화정책의 기초로 삼을 계획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기관들이 이미 있는데도 문화융성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들이 여럿 있지요. 그러나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은 어느 한 부처에서 주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문화융성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을 연결해서 문화가치가 확산되고 문화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생겼고,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부처 간 조정 역할, 나아가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 부처가 각각 하나의 나

### • 金위원장은

1961년 모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공보부에 첫 발을 내딛은 이래 문화공보부 최장기(7년 8개월)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영화진흥공사 사장, 예술의전당 초대 사장, 문화부 차관,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 민과 관의 경험을 두루 거쳤다. 현재 단국대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장으로

무라면 위원회는 전체 숲을 보면서 정책 방향을 이끌어 나가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요.”

— 최근 문화융성위원회 안에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취지와 역할은 무엇인지요.

“문화정책의 핵심은 결국 인문정신 분야를 진흥시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요즘 사

재작하며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명예 집행위원장,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한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프랑스 문화예술훈장 기사장(2000), 제4회 대한민국영화대상 공로상(2005), 유네스코서울협회 선정 올해의 인물(2009), 자랑스러운 영화인상(2010), 제12회 대한민국 국회대상 올해의 공로상(2011) 등을 수상했다.

한류는 드라마와 가요보다 순간적인 과급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오히려 저변은 더 확대되고 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님과의 인터뷰에서 영화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지난 10월 12일에 폐막한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아시아의 대표 영화제로 키워낸 주역으로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처음 부산에서 국제영화제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문화의 불모지라는 부산에서 영화제를 창설하고 벌써 18회에 도달했습니다. 15회까지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16회부터는 명예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 인생의 제2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감회도 깊고 남다른 정도 있습니다.”

— 올해 직접 영화를 연출하며 감독 데뷔도 하셨는데, 어떠셨는지요.

“그동안 다른 사람의 영화를 평가만 하던 입장에서 반대로 평가를 받는 입장이 되니 당혹스럽기도 하고 관객의 반응에 부담도 크더군요. 극장 개봉을 앞두고 감독과 제작사가 느끼는 초조함을 저도 직접 피부로 느끼며 ‘영화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단편 영화 제작을 앞두고 문화융성위원장을 맡아서 잠시 중단했는데 위원장 역할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도전할 생각입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인생에 있어 기회는 몇 번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어지는 기회를 진취적으로 받아들이며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자기 삶을 바꿔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신만 있다면 성취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이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진=朴新載기자 정리=林香默기자)



개학 118주년·개교 67주년 기념식

“지성의 전당인 대학 본연의 역할 수행해야”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등 시상·표창

모교 소식

모교(총장 吳然天)는 지난 10월 14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개학 118주년·개교 6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尹勤煥·孔大植부회장, 미주동창회 吳仁煥회장, 孫載沃차기 회장, 모교 吳然天총장 및 보직교수 등을 비롯한 교직원, 재학생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23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은 우리나라의 위상은 물론 모교의 명예를 전 세계에 드높인 潘基文 UN사무총장이 선정됐다. 潘총장은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동영상을 통해 수상소감을 전했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에 앞서 간호학과 河良淑교수와 시설지원과 조한자 선임주무관이 40년 근속, 예산과 최병선 선임행정관 등 57명이 30년 근속, 학사정보화 추진단 김학건 담당관 등 82명이 20년 근속 표창을 받았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에 매진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학내에 건전한 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관악봉사상’과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상’을 시상했다.

관악봉사상 수상자로는 허담(사회복지학과, 장애학생 대상 멘토링 활동)·박현진(전기·컴퓨터공학부, 비문해 어르신 대상 학습지도 봉사)·김동우(산업공학과, 자원봉사센터에서 통역 등 행정지원 봉사)·전창열(식품·동물생명공학부, 교육소외지역 중·고등학교 대상 멘토링 활동) 등 총 4명이 선정됐다.

이어 진행된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상 시상에서는 ‘벚에게 다가가다’를 쓴 지구과학교육과 석유미 양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중어중문학과 김예진 양(90번의 토요일, 481시간보다 더 깊은 인연)이 우수상, 심홍민(자유전공학부)·오혜인(경제학과)·최규현(동양사학과)재학생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석유미 양은 “계절과목 중 하나인 ‘사회봉사 I·II·III’를 수강하며 장애인 학습지도 및 베트남 해외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었는데, 이러한 활동으로 얻은 깨달음을 작성한 체험수기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吳然天총장은 기념사에서 “대학은 인류에 기여하는 소중한 지적자산을 만들고 가꾸어 가는 지성의 전당이자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의 원천이어야 한다”며 “지식과 정보가 범람할수록, 사회경제적 구심점이 흔들릴수록 대학 본연의 사명을 함당하게 수행해 나가야 하며, 이럴 때 모교가 우리 사회의 ‘희망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모교는 1895년 개학 이래 통합개교와 법인화 등 시대상을 반영한 능동적인 변모를 거치며 명실상부 국가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해 왔다”며 “모교가 오로지 지성의 전당으로서 학문의 기본을 굳게 지켜옴으로써 본연의 위치를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역대 총장님들과 교직원, 동문 모두가 헌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香)

吳然天총장 기념사 (요지)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척박하던 시기에 우리의 선배들이 품었던 미래에의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울였던 헌신의 노력에 새삼 경탄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배들을 자랑스러워 하듯이 개교 100년, 150년을 맞아 우리의 후배들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려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쌓아나가는 데 매진해야 합니다. 자기혁신의 노력을 한 순간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꿈과 열정을 끊임없이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오늘 개교기념식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역시 보다 긴 호흡으로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의연하게 이를 추구할 것을 기대합니다.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가진 열정과 꿈이었음을 우리 대학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전문지식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견고한 공동체정신을 동시에 갖춘 진정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개교 67년을 축하하는 오늘 이 자리가 서울대학교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우리 사회의 번영과 행복에 기여하는 지성의 전당이자 지혜의 원천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함께 노력합니다.



林光洙회장 축사 (요지)

모교의 개학 118주년, 통합개교 67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33만 동문을 대표해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교는 지난 6월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가 발표한 아시아대학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동경대를 제치고 4위에 올랐으며, 동 기관이 9월에 발표한 세계대학평가에서는 35위를 차지하며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당당히 겨루고 있습니다.

총동창회는 재작년 완공된 장학빌딩의 임대수입금으로 작년에는 25억9천여 만원의 장학금과 70억원 규모의 장학연구지원사업을 진행해서 모교의 교육 수월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세계에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랑할 수 있는 역사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일 애국지사이며 모교 법대 전신인 법관양성소를 1기로 졸업한 李 僑烈土는 “땅이 작고 사람이 적어도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이며, 위대한 인물은 반드시 조국을 위해 조국의 생명의 피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배인 李 僑烈土가 120년 전 부르짖은 바와 같이, 우리 서울대인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정신을 항상 되새기며 조국과 민족 앞에 짊어진 무한책임을 완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潘基文 UN사무총장 프로필·수상소감

인류 보편적 가치실현 위해 헌신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지혜 모아야”

潘基文 UN사무총장은 1963년 모교 외과학과에 입학해 1970년 졸업했다. 1970년 외무고시 합격을 시작으로 37년간 외교공무원으로 봉직, 외교통상부 장관을 거쳐 지난 2006년 한국인 최초로 제8대 UN사무총장에 선출돼 현재 제9대 UN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潘사무총장은 세계 평화 구현과 인류 복지 향상은 물론 국가 간 우호증진을 위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UN의 ‘새 천년 개발목표’를 통한 빈곤 퇴치와 인권 신장, 지속 가능한 개발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헌신하



고 있다.

또한 우리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국제 분쟁 등의 최상위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천재지변에 직면한 이재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마련하는 등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수상 소감 (요지)

오늘 개교기념식을 맞아 부족한 저를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올해로 23번째를 맞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이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91년은 한국이 북한과 함께 UN에 가입한 해입니다. 1991년 창설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과 한국과 UN의 역사가 모두 23번째를 맞는 올해 사무총장으로서 이 상을 받게 돼 더욱 기

쁜 마음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진정한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도전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파트너십은 우리 모두의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열정은 성공의 열쇠요, 나눔은 성공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울대 후배 여러분들이 장차 이 나라, 그리고 국제사회를 이끌 주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켜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개관식에서 테이프 절단. 왼쪽 다섯 번째부터 孫一根상임부회장, 법대동창회 辛永茂회장, 법대 丁相朝학장, 아홉 번째 吳然天총장

## ‘于泉법학관’ 개관 행사 가져

### 법과대학

법과대학(학장 丁相朝)은 지난 10월 16일 법과대학동창회·법학발전위원회·법대장학재단과 공동으로 ‘于泉법학관 개관식 및 법대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于泉법학관은 모교가 지난 2012년 4월 한화그룹(회장 金升淵)과 협약을 맺고 같은 해 7월 공사를 시작해 14개월 만에 완공했으며, 金升淵회장의 호를 따 명명됐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吳然天총장, 李俊植연구부총장, 법과대학 丁相朝학장, 법과대학동창회 辛永

茂회장, 그리고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琴震鎬·李海遠·李相赫부회장, 법학발전위원회 金慶漢위원장, 법대장학재단 吳允德이사장, 한화그룹 金然培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관계자 10여 명 등 1백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吳然天총장은 신축 강의동 건립을 기념해 한화그룹 金升淵회장과 한화건설 이근포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丁相朝학장이 모교 시설기획과 김경호 과장과 한화건설 김윤해 현장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吳然天총장은 축사에서 “새로운 법조시대를 염원하는 이들의 기대

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이뤄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辛永茂회장은 “于泉법학관은 향후 법학의 세계화는 물론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산실이자 로스쿨 시대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金升淵회장을 대신해 金然培부회장은 “서울대 교정에 한화의 인재사랑이 또 하나의 보람된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개관식 후 열린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은 오는 2017년 폐지되는 모교 법대의 오랜 역사와 정통성을 법학전문대학원이 계승해야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 후원인 가족 초청 감사의 자리

### 모교 병원

모교 병원 발전후원회(회장 姜信浩)는 지난 10월 4일 모교 연건캠퍼스에 위치한 대한의원에서 후원인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 이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모교 병원 후원인 가족들을 초청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후원인과 모교 병원의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동화로 재구성한 영상 감상과 ‘아름다운 손’ 촬영 시간을 가졌다.

모교 병원 吳秉熙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후원인들과 미래의료의 길을 함께 만들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표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인 가족을 초청한 자리에서. 좌로부터 다섯 번째 吳秉熙원장

## 吳憲錫·許元琦교수 우승

### 관악교수테니스회

관악교수테니스회(회장 金昌民)는 지난 10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코트에서 2013년 가을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32명의 동문이 참가해 A·B조로 나뉘 열편 승부를 펼쳤다.

행사를 위해 본회 林光洙회장, 모교 吳然天총장을 비롯한 교내의 여러 단체에서 금품을 협찬했다.

이날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A조 : 우승 吳憲錫(국민윤리교육86-91)·許元琦(미생물87-92)교수, 2위 李廷滿(지리76-80)·金男重(의학86-92)교수, 3위 徐道植(응용미술74-78)·朴鍾逸(수학82-86)교수, 4위 李明均(전문76-80)·柳根寬(경제79-83)교수 ▲B조 : 우승 李俊求(경제68-72)·김낙완(항공우주91-95)교수, 2위 金世植(경제79-83)·石暎宰(미생물81-85)교수, 3위 金熙濤(화학66-70)·김도희교수, 4위 徐世源(화학69-73)·崔鍾根(자원공학84-88)교수

### ‘밖에서 본 한국’ 특별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원장 金仁杰)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 연구원 전시실에서 ‘한국학, 밖에서 본 한국’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외국인들의 한국학 연구 성과와 한국 기행문 등 관련 연구원 소장 자료들을 한 자리에 전시함으로써 세계 학계에 ‘한국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성립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피고자 기획됐다.

한편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지난 10월 17~18일 연구원 대강당 및 사회대 신양학술정보관에서 ‘동아시아 고전의 (재)해석과 정전의 형성’이란 주제로 제6회 한국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도예전공 공동기획전 박물관

박물관(관장 李鮮馥)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모교 미술대학 도예전공과 공동으로 ‘새로운 과거-박물관 유물과 현대 도자공예’를 전시한다.

모교 도예전공 교수에서 학부생에 이르기까지 총 37명이 참가한 이번 전시를 통해 과거의 흔적을 담고 있는 박물관 유물과 젊은 작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다채로운 도예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과거의 유물이 재료와 기술, 기능 등에서 어떻게 재해석됐는지 작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THE’ 세계대학평가 44위

### 15위 상승 … 역대 최고 순위

모교가 영국 대학평가기관인 THE(The Times Higher Education) 세계대학평가에서 작년 대비 15단계 상승한 44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THE 평가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순위이며, 아시아권에서는 도쿄대(23위), 싱가포르국립대(26위), 홍콩대(43위)에 이은 4위에 해당된다.

모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국제화 부문에서 좋은 평가

를 받은 것은 물론 산업역량 부문의 평가도 높아져 종합평가에서 순위가 오른 것으로 평가됐다.

THE는 교육환경(30%), 연구역량(30%), 연구영향력(30%), 국제화(7.5%), 산업역량(2.5%) 등 5개 분야를 종합평가하고 있다.

모교는 올해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 기록인 35위를 기록한 바 있다.

## ‘훌륭한 공대 교수상’ 시상

### 공과대학

공과대학(학장 李建雨)은 지난 10월 2일 모교 관악캠퍼스 글로벌 공학교육센터 대강당에서 ‘훌륭한 공대 교수상’ 수상자로 건설환경공학부 徐慶德(토목공학71-80)교수와 재료공학부 姜信候교수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 상은 1992년 공대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산업기술의 선진화를 목표로 신설됐으며, 지난 2003년부터 교육상과 연구상 2개 부문으로 나뉘 시상하고 있다.

연구상 수상자인 徐교수는 지난 1997년 모교에 부임한 이래 파랑변형 수치모형, 유공 구조물과 파랑의 상호작용, 해안 구조물의 신



姜信候교수, 李建雨학장, 徐慶德교수

뢰성 설계 등에 대한 연구로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교육상 수상자인 姜교수는 재료열역학, 재료상변태, 형광체 및 고경도 복합재료합성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며 지난 20여 년 동안 박사 16명, 석사 29명을 배출하는 등 인재 양성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 오페라 ‘돈 파스칼레’ 공연

### 음악대학

음악대학(학장 金泳律)은 지난 10월 24~26일 모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오페라 ‘돈 파스칼레(Don Pasquale)’ 공연을 열었다.

모교 발전기금이 후원하고 오페라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공연의 예술총감독과 합창지휘는 모교 성악과 尹賢珠교수, 오케스트라 지휘는 모교 작곡과 金德基교수와 김영량동문, 연출은 오페라연구소 이경재동문이 담당했으며 SNU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성악과 합

창단이 함께 무대를 꾸몄다.

한편 10월 25일 공연은 재단법인 발전기금이 모교에 후원한 기부자와 동반 가족 등 총 1천6백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부자 초청 만찬에 참석한 본회 林光洙회장은 건배사를 통해 “모교 음악대학의 오페라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돈 파스칼레’ 공연이 관객 모두에게 오페라의 향취에 흠뻑 젖어드는 시간으로 오래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중견기업 채용설명회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원장 金炳道)은 지난 10월 22~24일 국내 1백대 중견기업과 함께 글로벌성장기업설명회 주간(Promising Company Week)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 초청된 중견기업은 매출 2천억에서 2조원 사이 규모로 3년 매출 성장 평균 10~15% 이상의 우량기업, KOTRA 월드챔프 선정기업 등으로 구성됐으며 행사가 진행된 3일간 모교 MBA 재학생 및 동문들을 대상으로 매회 4~5개의 회사설명회와 채용상담회가 동시 진행됐다. (香)

풍산 柳 津회장

원형공연장 기금 52억원 쾌척

풍산 柳 津(영문78-83)회장이 모교에 풍산 원형공연장 건립기금으로 52억원을 출연했다.

모교는 지난 10월 10일 총장 공관에서 吳然天총장과 柳 津동문을 비롯해 邊昌九교육부총장, 李在影 학생처장, 南益鉉기획처장, 孔炳永시설관리국장 및 풍산 崔漢明(금속공학70-74)사장, 柳時旻·孫伸明(무역78-82)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형공연장 신축사업을 위한 기부협약식을 가졌다.

柳동문이 기부한 기금은 2천3백여 석 규모에 최대 1만명까지 수용 가능한 원형공연장을 건립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기존 노천강당 부지에 세워질 이 공연장은 객석 주변 광장에서도 관람이 가능토록



柳 津회장, 吳然天총장

설계돼 학내 행사 및 공연을 위한 문화시설로 활용될 전망이다.

柳동문은 영문학술기금, 서울대 야구부발전기금 등을 출연하는 등 모교 발전에 앞장서 왔으며, 현재 영어영문학과동창회장 및 인문대학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JP모간 朴泰辰지점장

중앙도서관에 1억원 출연

한국JP모간 朴泰辰(독문80-84)지점장이 지난 9월 23일 모교 중앙도서관에 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이날 총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 吳然天총장, 朴枝香중앙도서관장, 발전기금 李昌雨부이사장·金炯周 상임이사를 비롯해 朴泰辰지점장의 가족이 참석했다.

이 기금은 朴동문과 부인 趙誠仁(불문83-87)동문의 뜻을 기려 ‘박태진룸’·‘조성인룸’이라 명명한 그롭스터디룸을 신축 도서관에 조



吳然天총장, 朴泰辰지점장

성해 모교 도서관을 최고 수준의 지식과 정보의 전당으로 만드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權基顯동문, 吳仁煥회장, 朴枝香중앙도서관장, 孫載沃차기 회장, 양남주·高光旋동문 부부.

미주동창회 吳仁煥회장 등

중앙도서관에 1만4천달러 기부

지난 10월 16일 미주동창회 吳仁煥(전문기상63-67)회장, 孫載沃(가정관리77-81)차기 회장, 權基顯(교육심리53-57)·高光旋(토목공학57-61)동문이 모교 중앙도서관에 1만4천달러와 도서를 기부했다.

이날 吳仁煥회장을 비롯한 미주 동문들은 중앙도서관에서 朴枝香관장을 만나 도서관 신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高光旋동문은 부인 양남주씨와 함께 친척인 尹琮燮(의학46-52)·梁喆柱(화학59-65)·高光彬(토목공학60-66)·梁承柱(법학67-71)·元浩淵(공업화학74-78)·梁曠洙(기계공학77-81)·尹玲美(미생물77-81)·宋恩玲(의학81-87)·姜晶斌(기계항공02-09)동문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쾌척했으며, 權基顯동문은 고도서 30여 권을 기증했다. (秀)

재학생의 소리



전국대회 다크호스로 부각

“서울대학교 여학생들이 축구를 한다고?” 공부벌레로만 알려진 서울대학교 여학생들이 남자들도 하기 힘든 거친 스포츠인 축구를 한다고 하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곤 합니다. 이러한 편견을 깨고 매주 운동장에 모여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모교 여자축구부는 2010년 9월 체육교육과 權成浩교수님과 맹혁주·金漢範조교, 그리고 당시 3학년이었던 이지현(체육교육08입)학생이 주축이 돼 여자축구클럽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탄생했습니다. 체육부 소속인 축구부를 비롯해 각 단과대 혹은 학과마다 축구동아리가 있었지만 여학생들이 매니저가 아닌 선수로 참여할 수 있는 팀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해 체육교육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4~5명으로 처음 구성돼 2012년부터는 체육부 소속의 정식 운동부로 활동하고 있습니

다. 2010년 11월, 매니저까지 포함 단 11명의 선수로 K리그와 숙명여자대학교가 주최한 소나타컵 대회에서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하며 신고식을 치른 이래 2011년 창단 2년 만에 문화체육부장관배 전국대학 여자축구대



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후 2012년 국민대 체육대학 학장배 대회 준우승, 서울대학교 배 여자축구 친선대회 우승, 그리고 2013년 국민생활체육회 주최 전국 대학라이벌전 여자부 준우승, 서울대학교 여자축구부 주최 전국대학 여자축구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는 등 역사는 짧지만

매 대회마다 다크호스로 꼽히는 저력이 있는 팀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학내에서 뿐 아니라 갈수록 늘어나는 대학 여자축구 클럽의 선수들이 축구로 하나 되는 장을 마련하고자 연 1회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올해 9월에 14팀 규모의 대회를 성

金 旼 夙(체육교육11입)  
여자축구부 SNUWFC 주장

공적으로 치렀습니다.

현재는 졸업생 5명 이외에 학부생, 대학원생 등 총 32명의 재학생 부원이 참여하고 있고 약 60%가 지구과학교육과, 식품영양학과, 사회학과, 경영학과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여자축구부는 순수 아마추어 운동부로서 학내 여성 스포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ince 1999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 S. Noble

겉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

- 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들로 업계 최고의 성혼율을 자랑
- 고급인의 네트워크를 통한 클립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s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로데오몰라자 7F

대한민국 1%의 결혼정보클럽-

S. Noble

한국후지제록스(주)  
www.fujixerox.co.kr

FUJI XEROX 

# 기업 성장의 베이스가 되다

안 보이는 곳에서  
가장 울림이 크며

중요한 화음을 내지만  
가장 드러나지 않고

조연 같지만  
없어서는 안되는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위해  
오늘도 낮은 곳에서

한 음 한 음  
자신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 성장을 위해 베이스가 되는  
한국후지제록스의 문서관리 아웃소싱 서비스  
기업을 위한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갑니다

## 한국후지제록스 문서관리 아웃소싱 서비스

문서가 기업의 중요한 관리자원인 오늘날, 한국후지제록스는 세계적 컨설팅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의 문서 및 업무 프로세스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성장을 이끄는 최고의 사업파트너 한국후지제록스를 만나세요.

  
소 비 자 중 심 경 영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13년 연속 고객만족도(KCSI) 1위

KOLON SPORT

www.kolonsport.com

# WAY TO NATURE

KOLON SPORT 40TH ANNIVERSARY



코오롱스포츠 40주년을 기념한  
김지운 감독의 단편영화 '사랑의 가위바위보'를  
지금 모바일로 감상해보세요.

윤계상 이소재 패치 재킷  
박신혜 프로텍터 포인트 재킷

## 콩트 릴레이

## 어떤 멸종

崔大煥(불문89-94)

소설가·KTV 기자 앵커



뚜룩뚜...; 뚜룩뚜...

그닥 시끄럽진 않지만 귀를 파고드는 듯한 날카로움이 섞인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깬다. 아침 일곱 시. 그리고 보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날임에도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난 건 참 오랜만의 일이다. 만일 내게 얼마 전의 소통의 어긋남만 없었다면, 오늘도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늦잠을 자는 서기 2113년의 어느 휴일 아침과 다르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오늘 일정!”

허공을 향해 외치자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가진 나의 그녀, 홈컴398호의 안내가

든, 실상 이 지구의 주인인 동물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 주었으면 하네. 바로 멸종을 말하는 걸세.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리포트의 주제는 사자들의 사냥 습성 변화와 영양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해 보게나.”

그렇게 해서 난 2주 동안의 준비 끝에 사자들의 사냥 습성이 그것들의 주된 사냥 대상인 영양 무리의 증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관해, 치밀하다고는 못하지만 한 학기 통과용 리포트로는 제법 그럴싸한 글을 만들어 제출했다. 그런데 내게 돌아온 건 의외의 호통이었다.

짜증이 리포트를 다시 쓰는 수고를 감수해야만 했고, 그렇게 해서 이 좋은 휴일에 아침부터 도서관행 스카이 버스에 몸을 싣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지 않은 휴일 아침의 도서관에서, 내가 입체 검색 시스템을 머리에 장착하고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은 ‘사자’가 아니었다. 스카이 버스를 타고 오는 내내, 교수도 나도 잘못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 나의 처지가 하도 억울해, 아무런 소리도 갖지 못한 그 놈의 ‘ㅎ’에 관해 분노와 궁금증이 분간할 수 없이 뒤섞인 채로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헤드셋 속 가상 입체공간을 향해 두 손을 허우적거리며 ‘ㅎ’에 관해 이것저것 파고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운 기억이 있는 기초적인 내용 정도만 확인하고 그 만두려 했다. 사자의 멸종 위기에 관한 리포트를 다시 작성할 시간도 빠듯했고, ‘ㅎ’ 발음에 관해 뭘 알아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래전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이 ‘ㅎ’의 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과, 그러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서기 2043년에 단행된 ‘한글 큰 정리’때 결국 ‘ㅎ’은 발음이 없는 것으로 정해지기에 이

갑: 별 좋은 일요일인데, 오늘 어디 가?  
을: 응, 오랜만에 교외에 나가 보려고.

갑: 우와, 괜찮은 계획인데. 누구랑, 가족들이랑?

을: 아니, 우리 식구 중에 나만 교외 나가잖아.

갑: ...?

비교적 절친해 보이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인데, 뭔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말을 할수록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짙어진다. 무엇이 문제일까. 계속해서 들어보자.

갑: 왜, 식구들이 교외를 싫어하나 보지?

을: 알잖아, 너무들 이성적이라 뭘 잘 믿으려 들어야 말이지.

갑: 교외 나가는데 믿긴 뭘 믿어?

을: 그럼 교외를 놀러가? 믿으려 가지.

갑: ...?

이쯤 되면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느낌이 온다. 만약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모여서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뜻이 담긴 교회라는 단어를 소리 내어 발음해 보길. 그리고 평소 주위 사람들이 이 말을 발음하는 것도 유심히 한번 들어보길. 허다한 사람들이 ‘교회’를 ‘도심 밖 가까운 주변’이라는 뜻이 담긴 ‘교외’로 발음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영향’을 ‘영양’으로, ‘고향’을 ‘고양’으로 발음하는 사이, 나름의 독립된 음가를 지닌 자음인 ‘ㅎ’발음이 알게 모르게 사라져가고 있다. 마치 생물체의 한 종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이러다간 오래지 않아 우리말의 생태계에서 ‘ㅎ’발음의 멸종을 맞을지도 모를 일이다.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보면 이렇다.

1. 소설의 출간이 작년보다 두 배로 늘어났다.
2. 소설의 출간이 작년보다 배로 늘어났다.

‘배’는 위의 예 1에서처럼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일정한 수나 양이 그 수만큼 거듭됨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 2에서처럼 그 자체로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 즉 ‘갑절’이나 ‘곱절’이라는 뜻도 가진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두 배’, ‘세 배’, ‘네 배’로 표현하는데 익숙해져, 예 2의 뜻을 거의 살려 쓰지 않고 있다. 무슨 쓸데없는 걱정인가고 할지 모르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배’라는 말이 옳듯이 혼자서 쓰일 수 있는 의미는 영원히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이 역시 또 하나의 멸종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생물들의 세계에서 한 종의 멸종은 곧 생태계의 교란으로 이어진다.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각 종들의 관계와 체계가 흐트러지게 된다는 얘기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의 세계와 견주어지는 비유가 타당하다면, 어떤 발음이나 의미의 멸종이 가져올 생태계의 교란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해질 수 있다. 생각해 보자, ‘ㅎ’이 음가를 완전히 잃게 되는 순간, 얼마나 많은 말들이 동음이의어로 전락하거나 특정한 의미를 잃고 버려지게 될지를 말이다.

혹시 또 누가 알겠는가. 1백년쯤 뒤의 어느 날 우리 후손들 중 누군가가, ‘ㅎ’발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내버려둔 게으른 조상들을 뚫시도 원망하게 될지.

“영향’을 ‘영양’으로,  
‘고향’을 ‘고양’으로 발음하는 사이,  
나름의 독립된 음가를 지닌  
자음인 ‘ㅎ’발음이 알게 모르게  
사라져가고 있다.  
마치 생물체의 한 종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이러다간 오래지 않아 우리말의  
생태계에서 ‘ㅎ’발음의 멸종을  
맞을지도 모를 일이다.



일러스트레이터 蘇余廷(디자인09-13)

시작된다.

“오전에 국립 디지털 도서관에 가서 점심식사 전까지 사자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고, 오후엔 졸업을 위한 마지막 리포트를 재작성하셔야 합니다. 저녁식사 후 늦지 않게 아르바이트 직장에 도착해서...”

그렇다. 어젯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입력했던 계획에 따르면, 나는 아침에 도서관을 가기로 했다. 여기서 도서관까지 멀진 않아도, 스카이 버스 시간을 맞추려면 일찍 나서는 수밖에 없다. 누가 들으면 나를 대학 졸업반인데도 마지막까지 도서관을 찾을 정도의 공부벌레라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실상은 교수가 내준 리포트 하나를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제출해 다시 써오라는 명을 받았을 뿐이다. 졸업 전 마지막 전공 강의를 맡은 교수는 일대일 면담에서 내게 분명 이렇게 말했다.

“4년 동안 동물학을 공부해온 자네에게, 졸업 전에 꼭 필요한 과제를 내주겠네. 자네가 관련 직종에서 일하게 되는 그렇지 않

“자네는 2주 동안 대체 뭘 한 건가?”

“...?”

“인간들에 의해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멸종 위기에 처한 사자들이 무리 사냥에서 단독 사냥으로 습성이 바뀌어 가고 있고, 그것이 다시 사자들의 멸종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을 추론했어야지. 여기서 뜬금없이 영양이 왜 나오나?”

“교수님께서 분명 영양에 관해서 알아보라고...”

“그래, 영양. 사자의 사냥 습성 변화가 사자의 멸종에 미치는 영양 말일세.”

“....”

“아무리 마지막 학기라도 점수를 줄 수 없으니, 다음 주까지 다시 써오게.”

대략 이렇게 된 이야기였다. 교수는 ‘영향’을 말한 것인데, 나는 ‘영양’으로 알아들은 것이다. 억울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별 수 없는 노릇이었다. ‘영향’이나 ‘영양’이나, 둘 다 ‘영양’으로 발음되기는 마찬가지니까 말이다. 난 졸업을 위해서는 꼭

르렀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자, 나는 그 즈음의 조상들에게 화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

대체 나의 조상들은 엄연히 자음인 ‘ㅎ’을 왜 소리 없는 놈으로 만들어 놓은 걸까. 게을러서인지, 아니면 그 무슨 효율성의 논리에 사로잡혀 그랬는지 모를 일이지만, 그로 인해 2113년의 내가 이렇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옳듯이 휴일을 빼앗기는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렇게 ‘사자’에 관해 생각해야 할 내 머릿속을 온통 ‘ㅎ’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고 오전 시간을 고스란히 허비하고 있는 내 눈앞에, 1백년 전에 쓰인 고문서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기 2013년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어느 소설가가 자신의 대학 동창회보에 쓴 것으로 기록된 그 짧은 글은, 사자의 멸종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어떤 멸종’에 관한 우울한 예언이었다. 헛, 그런데 그 예언에는 바로 내 얘기가 담겨 있었다.

동 정

수 상

▲李禹煥(회화56입 서양화가)=  
지난 10월 19일 서울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금관문화훈장 수훈.

▲洪性宇(법학57-61 변호사)=  
지난 10월 2일 영산법률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9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李秉根(국문59-63 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지난 10월 9일 한글날 경축식에서 문화포장 수상.

▲夫庚生(농생물60-64 모교 농생명공학부 명예교수)=최근 호주 멜버른에서 아시아·태평양 화학생태학회로부터 공로상 수상.

▲崔昌杰(경제60-64 고려아연 명예회장)=지난 10월 4일 2013년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국민훈장 수훈.

▲安輝濤(고고인류61-67 모교 명예교수·국외 소재문화재단 이사장)=지난 10월 22일 (사)淸權祠로부터 제16회 효령상(문화부문) 수상.

▲李起盛(지리64-68 계원예대 명예교수·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지난 10월 11일 제27회 책의 날 기념식에서 출판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수상.

▲金東寧(경제64-68 한세에스24 홀딩스 회장)=지난 10월 1일 서울매경미디어센터에서 제1회 매일경제 럭스멘(LUXMEN) 기업인상 수상.

▲朴泳姬(작곡69졸 前독일 브레멘국립예술대 교수)=지난 10월 16일 白南기념사업회로부터 제1회 백남상(음악상) 수상.

▲李光虎(철학68-75 연세대 교수)=지난 11월 1일 퇴계학연구원이 수여하는 제10회 퇴계학술상 수상.

▲鄭俊陽(공업교육75졸 포스코 회장)=지난 10월 24일 대한금속재료학회에서 수여하는 금속재료상 수상.

▲姜昌律(제약73-77 모교 제약학과 교수)=지난 10월 17일 대한약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제44회 한독학술대상 수상.

▲盧貞惠(미생물75-79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지난 10월 19일 경기여고동창회(경운회)로부터 제20회 자랑스러운 경기인상 수상.

▲李明植(의학75-81 성균관대 교수)=최근 대한 의학회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수여하는 제23회 분취의학상 수상.

▲琴鍾海(수학76-80 고등과학원장)=지난 10월 25일 대한수학회로부터 대한수학회상 학술상 수상.

▲金善九(무역76-80 모교 경제학부 교수)=지난 10월 11일 한국경제신문이 수여하는 제32회 다산경제학상 수상.

▲韓三熙(사회77-81 조선일보 논설위원)=지난 9월 25일 고운문화재단이 수여하는 고운언론인상 수상.

▲權在弘(식물77-81 MBC 보도본부장)=지난 10월 11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제9회 한국잡언론인대상(방송경영부문) 수상.

▲朴喜載(기계설계79-83 모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지난 10월 16일 白南기념사업회로부터 제1회 백남상(공학상) 수상.

▲李龍煥(농생물79-83 모교 농생명공학부 교수)=최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미국식물병리학회 총회에서 루스 알렌

어워드 수상.  
▲高光澈(무역79-84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지난 10월 11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제9회 한국잡언론인대상(경제부문) 수상.

▲朴南基(국어교육80-84 광주교대 교수)=지난 10월 1일 미국 피츠버그대 개교 225주년 기념 최우수 동문 시상식에서 '피츠버그대를 빛낸 인물상' 수상.

▲吳炳祥(사회81-85 JTBC 보도국장)=지난 10월 11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제9회 한국잡언론인대상(방송기획부문) 수상.

▲郭太憲(행정원86-88 서울신문 편집국장)=지난 10월 11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제9회 한국잡언론인대상(정치부문) 수상.

▲金芝苑(불문90-94 KBS 부산방송총국 보도국장)=지난 10월 11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제9회 한국잡언론인대상(지역언론부문) 수상.

▲田溶宇(AMP 65기 퍼스텍 사장)=지난 9월 27일 한국방위산업학회에서 수여하는 제2회 자랑스러운방산인상(방산기술상) 수상.

▲朴俊英(HPM 1기 을지재단 회장)=지난 10월 19일 용산고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용산인상 수상.

▲成會鏞(AIC 27기 SBS 보도국장)=지난 10월 11일 한국언론인

연합회로부터 제9회 한국잡언론인대상(방송정책부문) 수상.  
▲閔庚旭(SPARC 15기 KBS 앵커)=지난 10월 11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제9회 한국잡언론인대상(앵커부문) 수상.

▲宋孝淳(AFP 7기 에코에너지홀딩스 대표)=지난 10월 18일 2013년 신재생에너지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

▲李東基(IFP 7기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전남본부장)=지난 10월 26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표창상 수상.

인 사

▲李揆澤(교육60-68 前국회의원·서울종합예술대 석좌교수)=지난 9월 30일 임기 3년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취임.

▲洪恩德(외교61-68 前국회의원)=지난 10월 1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에 선출. 11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9차 화해공영포럼 개최.  
▲閔東必(물리64-71 모교 명예교수)=지난 10월 7일 유엔 과학자문이사회 위원에 위촉.

IEEE English for Engineering

Imagine!

우리나라 모든 공대생들이 1학년 때부터,  
IEEE English for Engineering으로 공학영어 공부에 전념하는 모습일!  
그들이 만들어 나갈  
The World Best  
Scientific Korea, Creative Korea & Global Korea를!  
생각할수록 가슴이 Bounce! Bounce! Bounce!  
Would you imagine together?

<http://english.ieee-elearning.org> 에서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Authorized Dealer in Korea 대표 홍영표 (국제대학원 GLP 21기)

▲金英勳(행정71-75 대성그룹 회장)= 지난 10월 17일 대구광역시 산격동 엑스코에서 열린 세계에너지총회 폐막식에서 세계에너지협의회(WEC) 공동의



이사장) = 지난  
10월 1일 임기  
4년의 위덕대  
제6대 총장에  
선임.

▲徐權宇(사회교육83졸 前하나금융지주 부사장·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장) = 최근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선임.

▲金成一 (ACAD 58기 前공군 참모총장) = 지난 10월 18일 임기 4년의 대한장재인체육회 제3대 회장에 선출.

▲俞東濬(참사56-60 晶月 羅蕙錫  
기념사업회장·  
수원지부동장회  
장)= 지난 10월  
29일 경기도 수  
원시에서 晶月  
羅蕙錫선생 서거

##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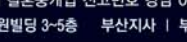


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 약대/성균관대 등  
명문대 동창회 제휴사 엔노블



서울대학교 동문회  
연세대학교 동문회  
고려대학교 동문회  
성균관대학교 동문회

전문전용상담 02.3445.2445  
대표상담 1577-2050  
[www.nnoble.co.kr](http://www.nnoble.co.kr)  
편안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동문과 자녀분들께 최고 20% 가입비 혜택을 드립니다.

엔노블은 2009년부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협력하여  
동문 및 자녀분들을 위한 결혼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결혼정보회사, 엔노블에서 특별한 혜택으로 모시겠습니다.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치대, 서강대, 이화여대 약대, 성균관대 총동창회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단독 제휴사
- 다양한 전문직, 관/공기업 제휴 (치과 공보의 협의회, KOTRA, 서울시 공무원 노조 등)
-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KBS TV가이드 추천 "BEST 결혼정보회사"
- 경향신문 유망브랜드대상, 2012 모범기업인대상 "국회보건복지위원장상" 수상
- 성혼주의 - 1년 회원기간 중 만남횟수 제한이 없는 멤버십 회원제
- 철저한 3:1 비공개 회원관리
- 다채로운 노블레스 파티 이벤트
- 부산직영지사 및 미국 4개 협력지사 운영
- 멤버십 제휴혜택(하나투어, 코오롱스포츠 서초점, 르네상스 호텔 등)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엔노블**  
결혼정보회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0-16 성원빌딩 3~5층 부산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센텀리더스마크 4006호

65주년 기념 추모강연회 개최.

▲孫經秀(경제56-60 동인안전 회장·서울농협동인회 명예회장)=지난 11월 6~7일 일본 대마도에서 농협동인회 전국 12개 시도동인 회장과 동인안전 지사장을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李炳熙(농학57-63 모교 식물생산과학부 명예교수·한국블루베리협회장)=지난 9월 27일 전북 무주군 예채회관에서 블루베리협회 하계 세미나 개최.

▲鄭用昇(천문기상58-62 한·중 대기과학연구센터장)=지난 10월 7일 충북 청원군 강내면 연구소에서 센터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金亨圭(기악60-64 한양대 명예교수·피아니스트)=지난 11월 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러시아 국립 볼고그라드 오페라단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에서 협연.

▲安榮秀(임학61-65 베이스)=지난 10월 30일 부산광역시 경성대 콘서트홀에서 피아니스트 崔榮民(대학원08-11)동문의 반주로 독창회 개최.

▲金明子(화학62-66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지난 11월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여성과총 창립 10주년 기념식과 학술대회 개최.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지난 10월 31일 서울 뉴제호텔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柳旭변호사를 초청해 월례발표회 개최.

▲張萬基(경대원66-68 인간개발연구원장)=지난 10월 3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연세대 李榮堉명예교수를 초청, '창조경제시대, 대학의 변화와 역할'을 주제로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개최.

▲李鎬仁(응용화학66-70 전주대 총장)=지난 10월 23일 전주대 예술관에서 개교 50주년 기념사업회 발족식 개최.

▲李圭碩(지구과학교육66-73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장)=지난 10월 19~20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제21회 과학 짝 큰잔치 개최.

▲朴憲烈(화학공학67-71 前중앙대 교수·국제힐링학회 회장)=지난 10월 5일 서울 평창동 김중영 미술관에서 '두 자연의 하모니'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 개최.

▲郭贊浩(신대원69-71 민주평통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지난 10월 11~12일 강원도 고성 군금강산론대에서 열린 통일안보 현장체험 교육에서 특강.

▲嚴翼俊(건축69-73 한국기술사회 회장)=지난 10월 17~19일 수원 IBIS호텔에서 '미래 과학기술에 따른 기술사의 역할'을

주제로 제43회 한일기술사 국제컨퍼런스 개최.

▲金仁杰(국사71-75 모교 국사학과 교수·규장각 한국학연구원장)=지난 10월 10일 규장각 창설 이후 처음으로 규장각 소방훈련(인명구조 및 문화재 반출 훈련) 실시.

▲李宇新(임학75-82 모교 농생대학술립장)=지난 10월 7일 모교 관악캠퍼스 SPC연구동에서 동아시아 학술림 국제심포지엄 개최.

▲徐教一(의학78-84 순천향대 총장)=지난 10월 3일 영국 예식스대와 학술 교류 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趙泰玄(대학원79-83 가촌경영연구소장)=지난 10월 13일 화갑기념 수필집 '여백을 채우며' 출판기념회 개최.

▲崔賢子(농가정80-84 모교 소비자동학부 교수·한국소비자학회 공동회장)=지난 10월 11일 모교 관악캠퍼스 생활과학대학에서 소비자대상 시상식 및 심포지엄 개최.

▲林慶園(기악81-85 성신여대 교수·첼리스트)=지난 11월 12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영혼의 울림'을 주제로 첼로 독주회 개최.

▲金敬結(한대원83-88 한국교통연구원장)=지난 10월 7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철도기술의 국제 인증 관련 세미나 개최.

▲安晔延(국악93-97 이화여대 교수)=지난 10월 28일 서울 삼성동 한국문화의 집에서 '原音으로 흐르다'를 주제로 작곡발표회 개최.

▲金南中(기악97-01 비올리스트)=오는 11월 21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활이 춤춘다'를 주제로 비올라 독주회 개최.

▲朴世峻(디자인04-13 작가)=지난 10월 24~30일 서울 재동 갤러리 에쁘끄에서 '알록달록한 스트레칭'을 주제로 제1회 개인전 개최.

▲金澈運(AMP 33기 충효예실전문운동본부 이사장)=지난 10월 31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충효예실전문운동본부가 수여하는 제15회 대상 시상식 개최.  
▲鄭熙燮(IFP 8기 송실대 겸임교수)=지난 10월 8일 '협상론:원칙과 테크닉'(한국맥그로힐) 번역 출간.

■ 참가 명복을 빕니다 ■

- ▲尹承斗(경성고상43졸 前한일은행장)=10월 7일 별세(90세)
- ▲白雲松(의학50졸 前백운송산부인과원장)=10월 20일 별세(85세)
- ▲申鍾祐(경제46-52 前부국증권 사장)=10월 3일 별세(86세)
- ▲權利默(화학공학47-50 인하대 명예교수)=10월 9일 별세(89세)
- ▲金元可(행정48-51)=10월 7일 별세(99세)
- ▲金正坤(철학49-54 前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10월 1일 별세(84세)
- ▲李載龍(사학50-54 송실대 명예교수)=10월 13일 별세(83세)
- ▲張英俊(상학50-54 前관동대 대학원장)=10월 17일 별세(83세)
- ▲金烈圭(국문50-54 서강대 명예교수)=10월 22일 별세(81세)
- ▲宋洛憲(영문51-59 모교 명예교수)=10월 18일 별세(82세)
- ▲朴用楨(전기공학52-56 창원기능대 명예교수)=10월 24일 별세(83세)
- ▲權赫俊(전기공학53입 前영창약기 이사)=10월 14일 별세(78세)
- ▲李珍珪(치의학53-57 이진규치과의원장)=10월 13일 별세(78세)
- ▲明完植(행정54-58 변호사)=10월 15일 별세(78세)
- ▲李光奎(역사교육56-60 모교 명예교수)=10월 23일 별세(81세)
- ▲尹容求(기계공학56-61 선유건설 전무)=10월 28일 별세(75세)
- ▲崔爽結(경제56-62 前동국제약 부회장)=10월 24일 별세(77세)
- ▲洪根朱(행정56-62 前향린교회 목사)=10월 7일 별세(76세)
- ▲愼鏞代(국문58-64 충북대 명예교수)=10월 7일 별세(74세)
- ▲吳信男(건축60-64 前기린산건 사장)=10월 15일 별세(72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 e메일 : snua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 Paper Road!

## 전주페이퍼가 종이의 세계화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전주페이퍼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세계 종이시장의 중심이 되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종합제지기업으로 우뚝 서졌습니다.

Global Leader in Paper-  
**전주페이퍼**

HDC Hyundai Development Company IPARK

## 세상을 잇는 힘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 삶의 터전을 지어가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생활의 여유를 누리게 하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꿈이 현실이 되도록  
현대산업개발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건설, 금융, 쇼핑, 호텔, 약기, IT, 첨단신소재,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세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잇다  
**HDC** 현대산업개발

HDC 아이시아스

HDC 아이서비스

HDC 아이엔콘스

HDC 아이콘트루스

HDC 현대EP

HDC 자산운용

HDC 영창뮤직

HDC 현대아이파크몰

HDC 호텔아이파크

HDC 아이파크스포츠

## 한솔은 미래다

환경을 생각하는 한솔과 함께 하는  
미래는 언제나 푸를것입니다.

[www.hansolpaper.co.kr](http://www.hansolpaper.co.kr)/[www.papermall.co.kr](http://www.papermall.co.kr)

# Hansol

한솔제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0년 연속 수상  
(2004~2013 KMAC)



## 가천대학교 '가천하와이교육원'이 글로벌 교육의 메카로 비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인재의 산실-가천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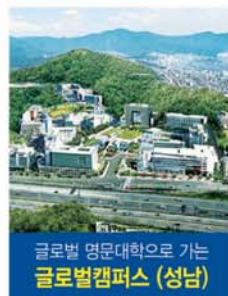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

Opening Ceremony  
Gachon Global Center, Hawai'i  
February 1, 2012 | 315 Saratoga Road, Honolulu



2012. 2. 1 가천대학교 가천하와이교육원 개관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가는  
글로벌캠퍼스 (성남)



21세기 첨단의학을 여는  
메디컬캠퍼스 (인천)



아름다운 캠퍼스로 빛나는  
강화교육원 (강화)



동북아 중심병원  
길병원 (인천)

아름다운 인재의 샘  
**가천대학교**



# The King of Snow

**외양은 모방해도  
성능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눈의 제왕이라 불리며  
세계적으로 그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프리미엄 제설기  
에어리언(Ariens)의  
명망을 직접 확인하세요.



## Ariens 제설기 시리즈

**1\_ 겨울용의 강력한 엔진 장착!**  
**2\_ 손쉽게 회전되는 슈트!**  
**3\_ 손 보호장치!**  
**4\_ Disk-O-Matic!**  
**5\_ 양손연동 시스템!**  
**6\_ 차동 장치식 휠!**

**PB 36**

- 배기량 : 265cc
- 리코일 스타팅 : 220V
- 작업폭 : 36인치(91.4cm)
- 브러쉬 : 25인치
- 구동장치 : 전진6단, 후진2단

**ST 24**

- 배기량 : 208cc
- 작업폭 : 24인치
- 속도 : 전진6, 후진2
- 투척거리 : 0.9~12.2

**ST 28DLE**

- 배기량 : 291cc
- 작업폭 : 28인치
- 속도 : 전진6, 후진2
- 투척거리 : 0.9~15.2

**ST 30DLE**

- 배기량 : 414cc
- 작업폭 : 30인치
- 속도 : 전진6, 후진2
- 투척거리 : 0.9~15.2

**HP 36DLE**

- 배기량 : 420cc
- 작업폭 : 36인치
- 속도 : 무단변속
- 투척거리 : 0.9~15.2

**ST 28DLET (레도형)**

- 배기량 : 305cc
- 작업폭 : 28인치
- 속도 : 전진6, 후진2
- 투척거리 : 0.9~15.2

**BP 28**

- 배기량 : 169cc
- 작업폭 : 28인치
- 브러쉬 : 18인치
- 속도 : 전진6, 후진2

(주)경진이레

본 사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07-4 선덕B/D | TEL : 02-574-6300 | FAX : 02-574-3144  
서비스센터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113-10 | TEL : 031-795-3055 | FAX : 031-795-3072  
홈 페이지 : <http://www.kjh.co.kr> | E-mail : [kjh@kjh.co.kr](mailto:kjh@kjh.co.kr)

**창립 14주년 · 2013년도 장학금 수여식**

2013년 2월 27일(수) 12:00 재단법인 신양문화재단

工大 엔지니어하우스에서 거행된 대학생 장학금 수여식



**<人材開發에 앞서가는>**

 **(재)信陽文化財團 鄭 哲 圭 (工大 化工6回)**

기본재산 189억원(83명)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재)관악회 특지장학생**

장학기금 3억원(3명)

 **(사)한국고무학회 信陽장학생**

장학기금 11억원(6명)

 **(재)信陽부산공고장학재단 장학생**

기본재산 20억원(설립 2012년)

 **(재)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관평장학생**

장학기금 11억원(23명)

 **信陽 고무전시관 개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76-31

# 내가 찾던 종합병원! “H+양지병원”



**이사장 (前 대한병원협회 회장)**  
**김 철 수** 1973년 서울대학교원 의학과 졸업



**병원장 (現 대한병원협회 보형이사)**  
**김 상 일**

- ☒ **우수한 의료진**  
대학병원 교수출신등 우수한 의료진의 책임진료
- ☒ **신형의료장비 도입**  
조기 암진단 PET-CT, 감마카메라,  
혈관조영장비, MRI 운영
- ☒ **짧은 대기, 친절한 설명**  
환자 중심의 1:1맞춤진료서비스



**콜센터 1877-8875 | 신림역 1번 출구 100M**

소화기병센터, 척추·관절센터, 심혈관센터, 뇌졸중센터, 유방센터, 갑상선센터, 여성의학센터, 재활의학센터, 건강증진센터  
핵의학센터, 인터벤션센터, 호흡기센터, 소아청소년질환센터, 난청센터, 인공신장센터, 응급진료센터, 정신건강의학센터

## 신 간

### ■ 일제시대 米穀시장과

#### 流通구조

－ 吳浩成 지음



성균관대 경제학부 吳浩成(농경제 58-64) 명예교수가 일제강점기 미곡시장을 기존의 생산과 수

탈의 측면이 아닌 유통구조를 중심으로 연구한 책.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일제가 도입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 아래서 조선 농민이 생산한 미곡이 상품으로서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조선미가 일본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조선미가 일본의 미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막대한 양의 미곡 수출대금은 누구에게 귀속됐으며 이 돈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식민지 조선의 미곡시장에서 조선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경인문화사사·값 34,000원〉

### ■ 나요당 민요집

－ 李勝娜 지음



충청남도 문화재위원인 민족음악연구소 李勝娜(법학 63-68) 대표가 고희를 맞아 절순기념문집을 펴

냈다.

羅謠堂 李勝娜가 그동안 녹음해 둔 북한지역 피난자들의 민요 중에서 몇 곡을 선정해 악보를 붙여 해설했다.

더불어 중국 雲南省 麗江縣 나시족의 축가, 북한 피난자들의 민요, 일본 모심기 소리도 CD에 담았다. 〈프로방스·값 20,000원〉

### ■ 다시 보는 경성제국대학

－ 李忠雨·崔鍾庫 지음



대학원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모교 법학부 崔鍾庫(법학 66-70) 명예교수가 일제강점기 서울에 설

치된 '경성제국대학'을 조명한 책. 이 책은 낯설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역사로서 한 교육기관의 역사를, 그로부터 우리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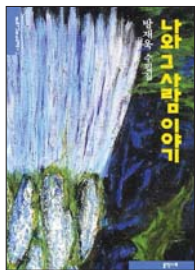
현대사 속에서 만들어진 대학교육의 초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경성제국대학'의 풍경과 인물들 그리고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알았지만 쉽게 지나쳤던 역사의 단면을 소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경성제대 시절 재학생들의 면담을 통해 생생한 현장을 담았다. 〈푸른사상·값 32,000원〉

### ■ 나와 그 사람 이야기

－ 方在旭 지음



충남대 생명과학과 方在旭(생물교육 68-75) 명예교수가 삶과 생명에 대한 글들을 엮은 수필집을

펴냈다.

총 3부로 구성돼 1부에는 '삶의 이야기'를 주제로 일상의 삶에 관한 글, 2부에는 '삶의 이해를 위한 생명의 이해'를 주제로 생명에 관한 글들이 담겨 있다. 3부에는 '자유칼럼과 함께 하는 삶의 이야기'를 주제로 方명예교수가 칼럼니스트로 참여하고 있는 '자유칼럼그룹'의 필진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진솔한 글들이 실려 있다.

평소 어렵게 느끼고 있는 삶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반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생활형 사례로 제시돼 독자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는 사색의 심연으로 나아가게 인도해주고 있다. 〈문학나무·값 12,000원〉

### ■ 회귀분석과

#### 아리마시계열분석

－ 宋根源 지음



경성대 행정학과 宋根源(사회사업 69-73) 교수가 회귀분석과 아리마시계열분석의 차이점을 정

리한 책.

1장에서는 변수와 인과관계, 2장에서는 시간의 개념 및 성격 등 통계분석의 기본적인 지식을 간략히 서술한 다음, 3장과 4장에서 회귀분석과 아리마시계열분석의 차이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곧, 회귀분석과 아리마시계열분석의 의미와 기본 모형, 기본 가정, 사용시 문제점과 대책, 회귀분석과 아리마시계열분석 결과의 해석을 각각의 장으로 삼아 차례로 설명함으로써 회귀분석과 아리마시계열분석의 이해를 도와준

다. 이 책은 고급 통계기법인 아리마시계열분석뿐만 아니라, 회귀분석기법의 이해를 돕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한국학술정보·값 14,000원〉

### ■ 종교와 경제

－ 李在律 지음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李在律(경제 72-76) 교수가 종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책.

종교와 경제는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여러 종교 가운데 한국에서 영향력이 큰 유교, 불교, 기독교의 세계관과 경제윤리가 개인의 경제행위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했다. 위의 세 종교는 공히 근면, 정직, 검약 등의 경제윤리를 가르치므로 경제에 순기능을 할 수 있으나, 강조점에서 다르므로 근대화에 대한 기여도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탐북사·값 17,000원〉

## 공연

### ■ 金祐載 기타 독주회

－ 11월 20일 예술의 전당



클래식 기타리스트 金祐載(기악 93-99)동문(사진)이 11월 20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연다.

성남국제기타페스티벌(SIGF)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金동문은 이날 바리오스 망고레, 니키타 코시킨, 프랑수아 크프랭 등의 작품을 열연한다. 〈공연문의: 세광아트 717-7012〉

### ■ 金南中 비올라 독주회

－ 11월 21일 예술의 전당

비올리스트 金南中(기악 97-01)동문(사진)이 11월 21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브루흐, 브람스, 힌데미트



등의 작품으로 독주회 '활이 춤춘다'를 갖는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을 역임한 金동문은 NewYork Concert Artists재단 초청으로 뉴욕 카네기홀(2014년 9월 3일), 베를린 필하모닉 캄머홀(2015년 4월 27일)에서 데뷔 독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공연문의: 세광아트 717-7012〉

### ■ 쉽이 있는 콘서트

－ 11월 23일 강남구민회관



누락문화예술기획 文京海(작곡 78-82)대표(사진)가 11월 23일 오후 3시와 6시

에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홀트의 아기들을 위한 자선 공연 '쉽이 있는 콘서트'를 연다.

이날 클래식 기타 4중주와 플라멩코 춤, 전통인형극 '돌아온 박점미' 등을 공연한다.

## 자동역률조정기의 신기술 창조기업

# 엠케이일렉트로닉스

- \* 콘덴서 판넬의 단순한 구성이 가능
- \* 각 콘덴서의 역률보상치에 퍼지제어를 적용하여 조합함에 의해 현재 부하설비에 맞는 최적의 역률제어 수행
- \* 초기 설치 후 3분이면 셋팅 완료
- \* 1999년부터 국내의 판매를 개시하여 H자동차, K자동차 공장을 비롯한 많은 곳에 설치 되어 그 신뢰성과 우수한 품질 입증
- \* 각종 전기 사용 환경에서 진상, 지상역률의 자동조정으로 역률 문제로 인한 전기 요금의 과부과를 줄여주는 필수 계측기
- \* 한국전력의 2012년 4월부터 적용중인 야간진상역률 요금부과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
- \* 일반주택, APT, 식당, 사무실, 공장, 전자기계설비에 적용이 가능

## 특징

- 고속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한 디지털 신호처리기술(DSP)을 적용하여 정확한 측정과 제어가 가능합니다.
- 17차까지 고조파를 측정, 지시하며 이를 통한 부하설비의 진단이 매우 용이 합니다.
- 각 콘덴서 뱅크의 역률보상전류치를 초기 전원인 가시 자동인식단계에서 기억, 저장한 후 최적의 역률제어를 수행하며 콘덴서의 용량저하, 마그네트의 교체시기를 알려줍니다.
- 콘덴서의 총방전 시정수를 자동적으로 인지하여 조절함에 의해 개별적인 총방전 시간을 설정하는 타이머의 설치와 시간설정 등의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 정확히 전원위상에 동기하여 마그네트를 제어함에 의해 스파크가 적어 콘덴서의 수명보호와 설비의 안전성이 유지됩니다.
- 진상, 지상역률 제어가 모두 가능합니다.



**MK 엠케이일렉트로닉스**  
www.mkelec.com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2-1 에이스 트윈타워 1차 1103호 TEL : 02-853-9020 FAX : 02-852-9022

# Your Best Solution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객의 생활을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당신이 상상하고 꿈꾸던 미래, 코오롱플라스틱이 만들어갑니다.



#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 회비 : 2013년 9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2013. 8. 5~10. 24) · 일반 (2013. 8. 5~10. 24)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 평생회비

(이사) △김병기 문리69  
△김수완 사회92 △김시내 자연90  
△김현일 수의91 △유성재 법대56  
△이광우 의대70 △조택호 공대61  
△차문현 AMP67 △최영운 공대73  
△황정연 공대76

(일반) △강사윤 공대79  
△계정대 공대04 △고재운 行院76  
△구희웅 공대87 △김광성 GLP25  
△김계동 AIP36 △김대인 SPAR23  
△김대중 농대86 △김도수 공대65  
△김두석 SPAR23 △김미셀 SPAR23  
△김미아 SPAR23 △김선희 의대72  
△김영숙 사대54 △김우준 공대87  
△김지인 미대07 △김해전 공대52  
△김형진 SPAR23 △김흥연 GLP26  
△남기주 법대83 △남충현 공대02  
△명노신 공대83 △문병무 SPAR23  
△민정기 SPAR23 △민효식 공대88  
△박광주 SPAR23 △박원규 SPAR23  
△박재학 공대75 △박진식 의대91  
△박찬원 경영03 △박현근 SPAR23  
△변철식 공대06 △서장우 SPAR23  
△설경석 SPAR23 △송신근 SPAR23  
△신숙희 간호66 △신영태 의대73  
△신형철 문리57 △심현섭 법대56  
△안상인 사대82 △안상휘 SPAR23  
△안철호 SPAR23 △안정시 문리63  
△양석준 농대90 △양재혁 SPAR23  
△양희준 의대99 △우종일 상대63  
△유당주 미대63 △윤미용 음대65  
△윤태권 SGS28 △이 석 인문03  
△이광석 GLP18 △이동국 AMFR29  
△이병하 공대74 △이상돈 SPAR23  
△이상욱 공대87 △이상철 사대77  
△이석우 SPAR23 △이성준 공대06  
△이영송 SGS8 △이영일 문리58  
△이용선 SPAR23 △이점식 차대61  
△이태중 법대78 △이혜경 SPAR23  
△이효분 음대67 △이희준 GLP22  
△임종갑 차대93 △전현희 차대84  
△전혜경 SPAR23 △정동원 법대51  
△정성희 인문82 △정연준 문리57  
△정현봉 AMP74 △조정훈 인문85  
△조후용 GLP25 △최승우 SPAR23  
△최재영 사회83 △최호권 농대81  
△최효성 SPAR23 △최효순 SPAR23  
△한성수 사회87 △한철종 공대55  
△홍범식 사회99 △홍정희 環院07  
△황광수 SPAR23 △황의연 농대82

## 이 사

◆인문대 △임미화83 △지두환73  
△한민구77  
◆사회대 △김소용79 △김충환73  
△박민식84 △이주형72 △조병철73

◆자연대 △이상영75 △장성기72  
◆간호대 △이병숙76  
◆경영대 △박종완71  
◆공대 △권순룡76 △권정대84  
△김대식78 △김병길64 △김선복62  
△김영수58 △김영신89 △김호수63  
△나형주73 △박상덕71 △박성규57  
△변순전85 △부준홍74 △설재훈74  
△손태원72 △심일보73 △안재혁01  
△우상룡72 △이능규69 △이영우79  
△이종훈55 △이철원80 △조명호74  
△주기태69 △지인호76 △차근오76  
△최상현77 △하태흠75  
◆농대 △곽소수60 △김광호61  
△김상도69 △김원달67 △김태수66  
△박순흥85 △선우정원81 △엄광섭83  
△원종영62 △유부열66 △윤여성76  
△전재성72 △조규태74 △조재구83  
△주민영88 △한갑준52  
◆문리대 △권민웅62 △김영주70  
△김용성62 △김진호68 △박경석55  
△박준원70 △박하진67 △박흥식66  
△안소연65 △이상열71 △이성덕56  
△정소성64 △정용두53 △최정도62  
△홍종호62  
◆미대 △김제웅60 △우상호89  
◆법대 △강태중52 △김부찬74  
△김수철71 △김연곤85 △김용환72  
△김정후57 △김제식77 △김종우59  
△김종훈83 △김진우52 △김현아90  
△류홍섭78 △박준서59 △박휴상65  
△안상수64 △이건종72 △이경우76  
△이동춘59 △이주성76 △이춘성74  
△이태창61 △임종훈73 △정해운57  
△정효채82 △지성우66 △최석원52  
△황철규83  
◆사대 △김성호70 △김진영65  
△박남기50 △박봉상59 △박재공62  
△신용래52 △안희수61 △윤웅섭61  
△이동호59 △이재혁63 △정공수69  
△정광삼58 △최운식63 △최태상53  
△함오연67 △형남규67  
◆상대 △구용서60 △권태인46  
△김만경53 △김명준62 △박성석61  
△백정기71 △심정구53 △안재현56  
△이갑현61 △이광수50 △이남수62  
△이호유54 △전병운70 △최기동70  
◆생활대 △조혜옥59 △황수현04  
◆수의대 △김진구61 △박전교74  
△신 심67 △이수창61 △홍상희82  
◆약대 △김명수71 △남승국70  
△도상복61 △손인자69 △원희목73  
△윤병길71 △최선식64  
◆음대 △신정혜77  
◆의대 △고영초71 △김예원68  
△박충학71 △정용인68 △정유조85  
◆치대 △김윤이73 △문복강62  
△민병희74 △박충차62 △박형기55  
△손일수71 △송명옥86 △이동악70  
△이수구66 △이윤상59 △이종학74  
△이호정86 △황의강61

◆대학원 △김석근81  
◆교대원 △장석민70  
◆보대원 △김종오79 △이형구91  
△조경복92 △조경중88  
◆신대원 △김태문71  
◆행대원 △곽대훈78 △노일숙79  
△박병련82  
◆환대원 △최강림90  
◆AMP △김승배45 △박인상28  
△이근호52 △이병성2 △정건택21  
△조봉구19  
◆AIP △박한창17 △이명호20  
△홍성철34  
◆ACAD △권도중49 △김경래18  
△박성득20 △이정익34  
◆HPM △김재중22 △백성길4  
△선덕남4 △채상식17 △최병용9  
◆AMPP △방석관1 △하영수2  
◆AIC △김정구3 △최유섭11  
◆AFB △최태봉8  
◆AMPFRI △이유인7 △이춘희9

◆ACPMP △남순우3 △임전수6  
◆FIP △서덕화2  
◆GLP △양재길5 △오윤석16  
△윤석호7  
◆ALP △김경일3  
◆SPARC △김인환2 △박승식6  
△이수원15

## 일 반

◆인문대 △권기욱82 △김연경93  
△김익재87 △김학래74 △문병우87  
△박영준90 △방한빈77 △신강문92  
△신예리87 △오세구72 △윤나경06  
△이정근03 △전상욱00 △조성무82  
◆사회대 △김계수81 △김기웅80  
△김동욱87 △김무늬03 △김서유82  
△김은경00 △김정환90 △김준환71  
△김형규85 △류성원91 △박준서80  
△신제윤77 △안 희00 △안재완86  
△오영환82 △오정민07 △윤용순92

△윤주필84 △이민형95 △이민호84  
△이수원81 △이준우92 △이치복87  
△전재호95 △전지혜10 △주명훈90  
△최정훈11 △한재연84  
◆자연대 △권용찬04 △김남우03  
△김용근74 △김정범88 △김지현92  
△김진희97 △박지용89 △봉성물04  
△송성식84 △안정은03 △이영근69  
△정광필85 △정승원98 △정인권90  
△진기배08 △진승민90 △최경원02  
◆간호대 △곽희희74 △김광숙58  
△범지현03 △정명자57 △정민주05  
△한영자66 △황애영68  
◆경영대 △강한수87 △김종성82  
△박봉호04 △변형규07 △안호성00  
△오세진06  
◆공대 △강신이73 △강욱태83  
△강태갑59 △고승구76 △고승희66  
△고태일06 △곽별근61 △구지령82  
△구준모11 △권혁주74 △김 영52  
△김규은48 △김기훈06 △김병숙52  
△김수광57 △김수환69 △김재용07  
△김재하11 △김정구65 △김정래01  
△김주호52 △김지용03 △김천주57  
△김충은99 △김태형94 △김현준93  
△김호철70 △김홍태07 △남궁석52  
△류세열86 △문동채65 △문제춘71  
△박수안72 △박영도69 △박용성03  
△박용택63 △박응준78 △박의종61  
△박재서65 △박희경73 △박희선58  
△박희수73 △배성준99 △변정근52

##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 SGI서울보증이 함께 합니다

지난 44년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사랑으로 SGI서울보증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SGI서울보증은  
대한민국 대표 보증기관으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고객의 성공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Your Best Credit Partner  
**SGI서울보증**

Global 대표사무소  
• 뉴욕 • 하노이  
• 북경 • 중동

Global 신용등급  
S&P : Fitch  
A : AA

세계 4위  
보증기관  
(ICISA 회원사 기준)

취업할 때 필요한  
신원 보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  
모기지 보증

세입자들을 위한  
전세금반환 보증  
전월세자금대출 보증

자동차를 구입할 때  
오토론 보증

납품/공사 계약 체결 때  
이행 보증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Counter Guarantee  
(구상보증)

www.sgic.co.kr | 대표전화 1670-7000

SGI서울보증 중립감사인 확인필 제2013-1호(2013. 2. 14)

△변지형⑧ △서상보③ △송대중⑤  
△송도균⑤ △송완근⑤ △송철상⑥  
△송하영⑦ △송한섭⑤ △송희국⑤  
△신소영③ △신효순⑤ △안홍삼⑥  
△연영소⑥ △오서균⑥ △오창진⑨  
△우명제① △윤경목① △윤익근⑦  
△이 룰⑩ △이광민⑤ △이권우⑨  
△이기성⑤ △이기재⑨ △이덕원⑤  
△이동선⑥ △이민종⑦ △이병수⑤  
△이성준⑧ △이세형⑧ △이인태⑤  
△이정규⑥ △이종면⑦ △이진표⑦  
△이호선⑨ △이희영⑦ △임무산⑥  
△임채용⑨ △장재명⑩ △장창선⑧  
△정동식⑦ △정민선⑦ △정봉주⑧  
△정소리③ △정원배⑤ △정재호⑧  
△정준용⑤ △정현영⑦ △조기연⑩  
△조남철⑥ △조인제⑥ △조정주⑤  
△주완중⑩ △지석배⑨ △지선호⑧  
△지태용⑤ △최성수⑤ △최시정⑤  
△최영교⑤ △최재평⑨ △최정근⑥  
△최종목⑥ △최준섭⑥ △편영준⑦  
△하태광⑧ △한희서⑥ △홍종민⑦  
△홍종우⑤ △황덕연⑧ △황종열⑥  
◆농대 △강용신④ △강인석⑧  
△강인섭⑦ △권종석⑧ △김 현⑤  
△김갑균⑥ △김교홍② △김상환⑧  
△김성훈⑨ △김승로① △김연표⑤  
△김영각④ △김용관⑤ △김인기⑥  
△김장섭④ △김재인⑤ △김종립⑥  
△김형우④ △김호일⑥ △남승우⑦  
△류수현③ △박기하④ △박명영⑨

△박장진⑤ △박지숙⑩ △서정연⑧  
△송환창④ △신동완⑤ △심자민⑤  
△안종성⑦ △양종성⑦ △양창범⑤  
△우창명⑥ △유지성⑤ △윤오섭④  
△윤창원⑥ △이 홍⑥ △이규형⑤  
△이길상⑥ △이두철⑧ △이두현⑦  
△이문규⑧ △이윤환⑥ △이재완⑥  
△임노현⑤ △임용훈④ △장성중⑤  
△장우상⑥ △정해각⑤ △조빈행⑤  
△조은비⑧ △주대영⑤ △천기길⑤  
△최금석⑦ △한강완⑥ △한광희⑤  
△한정수⑤ △홍석인⑤ △황재순⑦  
△황재우⑤  
◆문리대 △강신표⑤ △김남진⑤  
△김만목⑤ △김무장⑥ △김봉영⑤  
△김인철⑥ △박대일⑥ △박영순⑥  
△서근강⑥ △신호순④ △안석주⑥  
△안현수⑥ △양승영⑤ △양영수⑥  
△어복선⑤ △유광준⑦ △유규영⑤  
△유희형⑥ △이강조⑤ △이계원⑤  
△이문규⑤ △이선숙⑥ △이연희⑤  
△이용용⑤ △이종혁⑤ △인오룡⑦  
△임채욱⑤ △장내식⑥ △전광현⑤  
△정봉택⑤ △정용승⑤ △정익성⑤  
△정철현⑤ △조희근⑦ △표재명④  
△한정인⑤  
◆미대 △권순형④ △김상규⑧  
△김성희⑧ △박정기④ △박종규⑥  
△손복희⑦ △송희원⑨ △유인수⑥  
△장채일⑦ △전지윤⑧ △정종미⑦  
△주진희⑦ △최동신⑥ △한형성⑨

△허재경⑩  
◆법대 △고법석⑧ △곽영욱⑥  
△구본성⑦ △구은석⑧ △김동주⑨  
△김상일⑧ △김연훈⑤ △김용갑⑦  
△김원철⑥ △김응완⑤ △김정국⑤  
△김종영⑤ △김종호⑧ △김주원⑧  
△김평남⑤ △김향경④ △김형두⑤  
△나만수⑦ △명노연⑧ △박준수④  
△박주환⑥ △박진수④ △방극성⑦  
△송재양⑦ △심 평⑦ △엄진현⑤  
△오형환⑥ △원운목⑤ △유덕택④  
△이건리⑧ △이계영④ △이근윤⑦  
△이병무⑤ △이병호⑧ △이상화④  
△이수길⑥ △이용우⑥ △이재우⑧  
△이지은⑧ △이태식⑤ △이필관⑨  
△이한구⑤ △임창원④ △장효정⑧  
△정용재⑤ △정우채⑧ △정일만⑦  
△정종현⑥ △조영동⑤ △한준영⑥  
△한후진⑤ △허진성④ △홍진영⑩  
△황경진⑤  
◆사대 △권순용⑥ △권오현⑦  
△김경룡⑦ △김광호⑧ △김규호⑤  
△김수신⑥ △김우탁⑤ △김윤미④  
△김인재⑦ △김재철⑦ △김종훈⑦  
△김진철⑥ △김필수⑤ △김하로⑥  
△김한별⑦ △김형구⑥ △남상인⑦  
△문일성⑤ △문정대⑤ △문제세⑦  
△민진호⑧ △박희수④ △방영선⑤  
△백승용⑧ △서덕현⑥ △서혜지⑥  
△신용국⑤ △심상필⑤ △양덕배⑥  
△유봉호④ △유우길⑥ △이길자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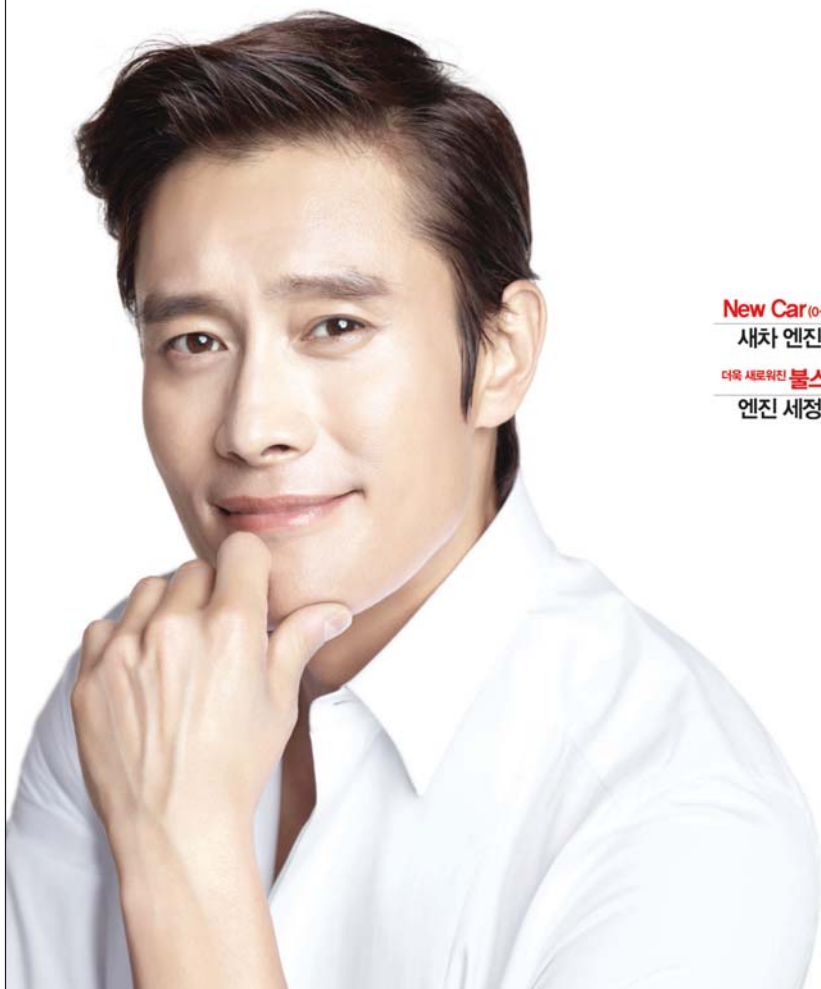
△이남승① △이민자⑤ △이방렬⑥  
△이보식⑤ △이성근⑦ △이수찬⑥  
△이인희⑥ △이종숙④ △이현순⑤  
△임규찬⑦ △정광훈⑩ △정부길⑤  
△정인형⑥ △조병완⑤ △조선희⑤  
△조의래⑥ △지동소⑤ △천낙경⑤  
△최아라⑨ △최정윤⑧ △최철수⑦  
△한상윤⑧ △한재란⑧ △한창립⑤  
△한태준⑧ △허현도⑤ △현재복⑥  
◆상대 △강문수⑥ △권혁조⑤  
△김덕명⑥ △김윤일⑥ △김종창⑤  
△노일봉⑥ △문성택⑥ △박원규⑤  
△변형운④ △서돈운⑤ △신광규⑤  
△신용태⑤ △신중현⑤ △이기주④  
△이기홍⑤ △이석주④ △이정권⑥  
△이찬구⑥ △이호철⑤ △장화진⑤  
△정기완⑤ △정철우⑤ △하기성⑤  
△허도환④ △황창기④  
◆생활대 △김영미⑧ △백선자④  
△손희준⑦ △안수라⑧ △윤기숙⑥  
△이규진⑤ △이용호⑦ △이지수⑩  
◆수의대 △김만영⑤ △김영훈⑧  
△김정근⑤ △김준삼⑤ △남궁선⑤  
△류기승⑥ △박영혜⑧ △변예은③  
△서상호⑨ △서정기⑦ △오연수⑧  
△유병문⑥ △이상우⑥ △정정현⑤  
△조광영④  
◆약대 △강기훈④ △김정환⑨  
△박창규⑤ △안원준⑧ △정대인⑥  
△조철원⑤ △주학유⑦ △추민정⑤  
△한병훈⑤  
◆음대 △김나정④ △김나아⑨  
△김명희④ △김숙이⑦ △박소희③  
△송복자④ △이경미⑦ △이현진③  
△채지성⑦ △황수아⑧ △황인영③  
◆의대 △강동완⑧ △권영현⑦  
△권희정⑦ △김진국⑤ △박진홍⑥  
△박현경⑦ △백나영④ △백종일⑧  
△석종식④ △송민준⑤ △신용찬④  
△신종근⑧ △심재식⑥ △유명철⑥  
△윤용구⑥ △이근후⑦ △이기현⑤  
△이승철⑥ △이신애⑦ △이원기⑥  
△임준희③ △정경천⑦  
◆치대 △강정규⑤ △고진수⑤  
△김상균⑧ △김성희④ △김영호⑤  
△김인수⑧ △김정태⑥ △김형욱⑧  
△노철진④ △박민호⑧ △박이자⑥  
△백정화⑥ △안상규⑤ △안성모⑥  
△엄인웅⑦ △우형식⑤ △유치린⑤  
△윤태호⑧ △이대원⑤ △이호상⑨  
△장연주⑤ △주관철⑤ △주광섭⑦  
△최규원⑦ △최승은⑥ △한영복⑤  
◆대학원 △곽병구⑧ △김송득⑧  
△송일민⑤ △오형재⑦ △이범걸⑧  
△정기환⑦ △허찬수⑦  
◆경대원 △박영희⑨  
◆MBA △고인준① △김형철①  
△박연경③ △이병철⑥  
◆교대원 △김기태⑦ △김충기④  
◆법대원 △방진영③  
◆보대원 △김선희⑩ △김효진⑧  
△박당우⑥ △박주홍④ △이민철⑧  
◆치대원 △김중순⑩ △홍지원③  
◆행대원 △김명진⑥ △김용국⑦  
△김주현⑨ △박삼규⑥ △원희영⑥  
△이준원⑧  
◆환대원 △강대욱⑦ △고성하⑦  
△김수미③ △김정욱⑩ △송장복⑤  
△전은선⑩  
◆AMP △강중현⑥ △권태명⑦  
△김성홍⑤ △김영섭⑤ △김익현⑦

△김준화⑧ △박근학⑤ △박영대①  
△박원규⑤ △박재상⑥ △박철구⑥  
△서준영⑩ △신문범③ △오도환⑦  
△윤승철⑦ △윤일중⑤ △이준호④  
△이현국③ △이현섭② △이현주⑦  
△정흥기⑥ △천병섭⑩ △황규홍⑤  
◆AIP △김규현⑦ △김대원④  
△김태우④ △배주호④ △신진해⑩  
△유영준④ △이명래⑨ △이문기⑥  
△이승진④ △이은택⑥ △이천우③  
△장덕흥④ △장진영④ △전진규④  
△정방언④ △지해환④ △채대석⑤  
△최재영① △허연행④ △홍두선④  
◆ACAD △권오형⑦ △김 진⑤  
△김원근⑥ △도기달⑥ △박경실⑦  
△성기태⑤ △안희수① △유영우⑤  
△유현규⑦ △이상종⑦ △이준현⑦  
△이창길⑤ △임대환⑥ △장기윤⑦  
△정병철⑦ △조병창① △조용안②  
◆ABP △김종욱⑨ △백형욱⑥  
△연기현⑧ △이재호④ △허 영④  
◆SGS △강영안⑤ △양주호②  
△정근수④  
◆APC △신현주⑧ △유명철①  
◆HPM △공운수⑩ △권차남⑤  
△김찬영⑦ △배경철⑧ △복성철⑩  
△이한구⑩ △임신규⑩ △정기호②  
△주범모② △최우석⑩  
◆AMPP △김종배② △류환범⑦  
△홍창식②  
◆AIC △곽복동⑧ △구관서⑧  
△김민철③ △남호연④ △민홍식③  
△박명진③ △조동수⑧ △홍의종⑧  
◆AFB △김진용② △이용택①  
◆AMPFRI △김경호② △박원술②  
△서강인⑩ △유찬중⑩ △장봉열⑩  
△최병문⑩  
◆ACPMP △김종하⑥ △신병규⑨  
△염정남⑥  
◆FIP △고영수② △박상기⑤  
△이인화⑤ △정연삼⑨  
◆GLP △구윤관⑦ △권갑현⑧  
△권오민⑦ △김병휘⑦ △김윤태②  
△김정환⑥ △김창근⑦ △김태화①  
△박동하⑦ △박정찬⑨ △박종식⑤  
△박홍순⑦ △이경승⑦ △이영우⑦  
△임경현⑦ △전광일⑦ △한남석⑦  
◆ALP △김하중⑧ △문정림⑧  
△박창수① △이경훈⑧  
◆SPARC △정무신⑤ △최평규④  
◆AFP △김홍렬① △신상홍⑨  
△오정현③ △한철호⑤  
◆ASP △김정원⑤ △김진호①  
△문병철① △서우택③ △송희원⑩  
△엄경열③ △연제훈⑤ △오광진③  
△이상경② △이영호⑤ △전광환④  
△정연호⑤  
◆IFP △강래영⑨ △강진기①  
△구본훈⑧ △김숙경⑧ △나준흠⑨  
△노일호⑨  
◆BCP △정연관① △조부선⑩  
◆ABKI △정해돈② △한형철③



새차처럼 생생하게

**NEW Bullsoneshot**



New Car (0~3만 km)  
새차 엔진 보호  
더욱 새로운 볼스원샷  
엔진 세정 강화



| 2013년 9월 |             |
|----------|-------------|
| 연 회 비    | 13,750,000  |
| 평생회비     | 30,500,000  |
| 입 회 비    | 1,140,000   |
| 계        | 45,390,000  |
| 2013년 누계 | 842,998,751 |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 모두가 행복한 행복주택

사회초년생 주거해결

지역소통 및 교류공간

육아센터, 어린이놀이방

사회적기업 유치

파출소, 보건소, 주민센터

야외 문화공연장

야외스포츠, 휴식공간

창업·취업센터

## 희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행복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일자리창출, 문화공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공간입니다

### 젊은세대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입지,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세대에게 우선 공급

### 젊고 활력 넘치는 복합문화타운

상업·문화시설 복합개발, 문화프로그램 도입  
사회적기업 유치로 고용창출, 창업·취업 지원



### 행복주택이란?

도심 내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주거타운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창업·취업지원 및 소통공간으로  
탄생하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생활문화 공간입니다.



# 고객과의 약속,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 기업 경영 전반에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회계감사·세무자문·컨설팅·재무자문 등 영역별 특화된 원스톱 종합 서비스와  
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딜로이트 컨설팅**

글로벌화된 무한 경쟁속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차별화 된 서비스로  
시장의 변화와 흐름에 앞서 나가 항상 고객의 기대보다  
한발 앞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Standard of Excellence*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딜로이트 컨설팅**

©2013.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Deloitte.**